



제 4 편
사회 · 언론
사회복지

● 제1장 총 론

● 제2장 사 회

● 제3장 언 론

● 제4장 사회복지

제1장 총 론

제4편에서는 ‘행정, 법률, 치안·국방’, ‘신문·잡지, 방송’, ‘사회 복지, 의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언론·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현황

회기별	지방행정	법 률	치 안	군 인		의료인	언론인
				장군	영관장교		
계	421(64)	106	120(36)	2(9)	68(75)	308	196(140)
1-9	5(60)	19	2(28)	(8)	(30)	65	9(49)
10-19	71(4)	10	36((7)	2(1)	6(37)	61	35(28)
20-29	217	23	41(1)		38(8)	46	58(23)
30-39	124	47	41		24	136	79(37)
40-	4	6					15(3)

지방행정에 봉직하는 동문들은 현재 제주도청 및 그 산하기관에 167명을 비롯하여 총 485명의 동문 중 64명이 퇴임하고 현재 421명의 동문들이 제주 지방행정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또 서울 경기 지역에 근무하는 오현고등학교 20회기 이후 졸업자들의 친목 모임인 ‘현공회(賢公會)’가 있는데 2002년 5월 현재 그 회원수가 7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으로는 법조인 55명, 법무사 17명, 법률기관 근무 34명 등 총 106명의 동문들이 봉직하고 있다. 이들 동문 중 법조인은 현재 국회의원 1, 변호사 20, 현직 검사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1, 현직 판사 8, 현직 검사 8, 법원 사무국장 1, 군 법무관 및 공익 법무관 3, 사법연수원 연수중 12명 등의 동문들이 있다.

‘치안’ 및 ‘국방’ 분야에서는 치안분야에 156명의 동문이, 국방분야에 영관급 이상의 동문이 154명의 동문들이 국가의 안위와 사회 질서를 위해 봉직하고 있다. 특히 국방분야의 장군 가운데 9명이 예편하고 현재 2명의 동문이 있다.

‘언론’ 분야에서는 총 336명의 동문 중 140명의 동문들이 퇴임하고 현재는 196명의 동문들이 활동 중이다. 현재 강영석(6) 동문이 「한라일보」 사장, 김대성(10) 동문이 「제주일보」 사장, 김순두(11) 동문이 KCTV 사장, 강만생(18) 동문이 「한라일보」 편집국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사회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보건 위생 33명, 사회복지 11명, 여성 복지 1명, 의료보험 기관 28명,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복지 시설 4명, 장애인 복지 시설 6명 등 73명 동문과 의사 164명, 치과 의사 47명, 한의사 23명, 약사 73명 총 308명의 동문들이 헌신하고 있다.

제2장 사 회

제1절 지방행정

1. 서론

사람은 태어나 죽는 날까지 휴식이나 오락, 사무와 노동 등 다양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인간 활동의 공간적 토대가 되는 곳을 우리는 우리 고장 내지는 지역이라 한다. 이 지역에는 가정과 직장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지방자치란 이러한 “일정 지역의 주민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원리와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국가의 통치적인 개념보다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작용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질서를 주민스스로 결정한다는 개념이 낫다. 그러기에 오현고가 위치하는 곳에서의 주민의 대표 또는 위탁받아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은 우리 고장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모교 발전에도 많은 연관 관계가 있다 하겠다.

우리고장의 지방자치는 1952년 5월부터 제주도와 제주시 그리고 읍·면을 자치 단체로 하여 실시하여 오다가 1961년 5·16 쿠데타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법이 부활되면서 1991년에 다시 실시하게 된다.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속성상 권력이 분리되어야 자치의 가장 근본인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부터 집행부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를 따로 두는 기관 대립형태의 제도를 택하였다.

자치단체의 장은 집행부의 수장이 되며, 모든 자치단체의 의사표시는 집행부의 장인 도지사의 명의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과 영향력은 지대하다 하겠다. 민선 자치 시대에 있어서의 행정공무원인 경우 시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책임은 민선인 도지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실국장 즉 참모들이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하겠다. 민선에 있어서는 도지사 시장·군수와 더불어 지역의 대표인 도의원, 시·군의원이 집행부의 간부보다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앞에서 도지사, 시장·군수 및 도, 시·군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정구역과 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지방행정을 위해 활동하는 오현인들을 소

개하기로 하겠다.

2. 제주도 행정구역의 변천

제주지방에 있어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 지역과 산북 지역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416년(조선태종16년)부터라고 한다. 한라산을 분수령으로 하여 산북 지방을 제주목의 관할로 하고 산남 지방을 동·서로 양분하여 정의·대정 양현 체제를 약 400여 년간 지속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지방행정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편하였고 전국을 23개 부(府)로 하는 부제(府制)를 실시하게 되는데 제주목을 제주부로 하여 제주·정의·대정군을 관할에 두게 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 부제가 폐지되고 다시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전라남도 관할의 제주목으로 환원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주·정의·대정군으로 나뉘져 있다가 1914에는 정의·대정군을 폐지하고 제주군 만을 전라남도에 소속하게 하였다. 1946. 8. 1 드디어 도제(道制)가 실시됨으로써 전라남도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도제 실시와 더불어 제주도의 관할 아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설치되었으며, 북제주군에는 한라산을 분수령으로 한 산북지역의 제주읍, 한림면, 애월면, 조천면, 구좌면, 추자면 등 1읍 5면을 남제주군은 산남지역의 성산면, 표선면, 남원면, 서귀면, 중문면, 안덕면, 대정면 등 7면을 관할하게 하였다. 이로써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2군 1읍 12면으로 출발하게 된다.

1955. 9. 1 제주읍이 시로 승격되었고, 1981. 7. 1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되면서 서귀포시가 탄생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2002. 5. 31현재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2시 2군으로서 제주시가 19개동, 서귀포시가 12개동, 북제주군이 4읍3면, 남제주군이 3읍2면 체제로 되어있다.

3. 행정조직의 변천

1) 제주도

1946년 미군정하에서 도제가 실시되면서 3국(총무국, 산업국, 보건사회국) 12과(서무·인사·회계·재무·소방·농무·축정·산림·상공·수산·보건·후생과)로 처음 업무를 시작한 제주도정은 1949년 7월에는 산업국과 보건후생국이 폐지되고 총무국 하나만을 두었는데 여기에 서무·회계·지방·농림·축정·학무과 등 6개과만 두게 되는데 이는 건국 초기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다.

1951년 4·3 이후에는 피폐해진 농촌의 재건을 위하여 산업국을 다시 두고 산업국에는 농림·축정·산업과를 두고 총무국에는 서무·지방·회계·학무·사회과를 두었다. 그 이후 6·25전쟁

등으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구나 공무원의 확대 증원이 없다가 1957년 지금의 농업연구원의 전신인 농사원만을 설치하였다. 1960년에 민주당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지사과 동리장까지 선출직으로 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때 행정기구는 2국 9과에 공무원 수는 139명(국가직 40명, 지방직 99명)에 불과 하였다.

1961년 5·16이후에는 읍·면장 등 모든 지방행정조직을 임명제로 개편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기까지 30여 년 동안은 도·시·군청 실·국·과장이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1963년에는 군정이 민정으로 이양되고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부지사제가 신설되고,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도청의 교육과에서 담당하던 교육행정 업무도 교육위원회로 이관되게 되었다. 한편 1964년에는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광운수과가 신설되게 되고, 각종 개발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1968년 개발국을 신설하였다. 또 1969년에는 비상대책담당관제가 지역계획관제가 설치되고 1970년에는 기획관리실을 설치하였다.

1970년도의 도행정기구는 1원·2실·3국·13과·3담당관제에 사업소로는 제주도립병원, 독립병원 서귀분원, 위생시험소, 여성회관, 문화관, 상공장려관, 공업시험연구소, 어승생용수관리사무소, 도로포장관리사무소, 도립목장, 가축보건소, 가축인공수정소 등 12개소였다. 그리고 당시 도 공무원 정원은 본청 301명, 사업소 122명 등 총 423명이었다. 1972년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마을지도과와 초지과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1974년에는 식산관제를, 1975년에는 민방위본부를, 1978년에는 식산국과 관광국을 1970년에는 종합개발담당관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총무국을 내무국으로 개편하고,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설치하였는데 이 때 도청의 기구는 1원·2실·8국 3담당관, 38실과로 되었고, 사업소는 제주도립병원, 독립병원서귀분원, 농민교육원, 축산개발사업소, 가축보건소, 보건연구소, 여성회관, 어승생 용수관리사무소, 중기사업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서울연락사무소, 농촌직업훈련소,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13개소이다. 또 당시 공무원이 정원은 본청488명, 사업소188명 등 671명이었다.

1980년대에도 행정개혁 등으로 여러 차례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대국 대과를 지향하는 개편을 한 바, 8국·3담당관·38실과에서 7국3담당관·35실과로 축소 개편하였으며, 1984년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부녀아동상담소를 설치하였다. 1987에는 산업국을 폐지하고 지역경제국을 신설하였고, 자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였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도 본청에는 의사계를 도의회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보건사회국을 보사회국으로 개편하고, 예산담당관과 문화예술담당관제를 신설하였다. 1991년 말 현재의 도 기구는 2원·10국·2담당관·58실과, 13사업소로 되었다. 이 때 도의 정원은 본청 757명, 사업소 320명으로 총 1,077명이었다. 2002. 7. 19 현재는 2

개의 부지사(행정·정무), 1실, 1추진단, 5국, 1본부, 2개의 직속기관, 8사업소와 의회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의 수는 총1,411명이다.

2) 제주시

1955년 제주읍에서 제주시로 승격될 당시 제주시의 조직은 부시장과 총무·재무·산업·사회 등 4과를 두고 40개 동이었으며, 공무원은 58명이었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부시장제가 폐지되고 한때 시교육구를 폐지하여 시에 교육과를 설치하였다가 1964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폐지하기도 했다. 1962년에는 사회과, 공보실, 보건소, 농촌지도소가 설치되고 40개동을 14개 행정동으로 개편하였으며, 1964년에는 시민회관이 설치되었다. 1966년 부시장제가 부활되고 1968년에는 수도과와 민원실, 1969년에는 감사과가, 1971년에는 부녀아동과, 1973년에는 새마을과와 녹지과, 1975년에는 민방위과가 설치되었다.

1979년 5월에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국 등 3개국이 신설되어 국제(局制)를 두게 되었으며, 1983년에는 우당도서관, 1985년에는 기획실, 1986년에는 위생과, 1987에는 기획담당관실, 지역경제과, 하수과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탐라도서관과 환경보호과가 설치되었다. 1991년에는 1실·3국·22실과·7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963명이었으나, 2002. 7월 말 현재는 1부시장, 1실 3국, 20개과, 2개 직속기관, 8사업소와 의회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공무원이 수는 총1,018명이다.

3) 서귀포시(西歸浦市)

1981년 서귀포시가 시제를 처음 실시할 당시의 기구는 시장과 부시장에 1실(공보실), 9과(총무·새마을·재무·시민·사회·관광·산업·건설·도시과)를 두었으며, 정원은 총 283명이었다. 그 후 1981년에 지적과, 1983년에 민방위과, 수도과, 보건소가 신설되었으며, 1985년에는 재무과를 회계과와 세무과로 분리하였다. 한편 1986년에는 하수처리관리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종합문예회관, 위민실을 설치하고, 1987년에는 위생처리장관리소, 농촌지도소를 1989년에는 기획감사실과 관광지관리사무소를 신설하였다.

1990년말에는 2실·13과·7사업소·12개동으로서 정원은 총 539명이었으나, 2002. 7월 말 현재는 1부시장, 2실 13개과, 4사업소, 2개 직속기관, 1기획단과 의회 사무과에 공무원 수를 포함하여 총 574명이다.

4) 북제주군

1946년 군제 실시 당시의 행정기구는 군수 아래 내무·산업·보건사회과 등 3개과를 두었는데

1950년대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

1961년 5·16 이후에는 내무·재무·교육·산업과 등 4개과로 확대 되었으며, 1961년말에는 보건사회과가 폐지되고 건설과와 공보실이 설치되었고, 1962년에는 농촌지도소가 신설되었으며, 1964년에는 교육자치제의 실시로 교육과가 교육청으로 분리 되었다. 1968년에는 산림과, 1969년에는 감사실, 1973년에는 새마을과 설치되었다. 또 1975년에는 민방위과가 신설되었으며, 새마을과가 폐지되었고 부군수제를 신설하였으며, 1978년에는 향몽유적관리사무소가 신설되고, 1979년에는 새마을과와 사회과가 부활되었다. 그리고 1985년에는 위민실이, 1987년에는 수산과, 1989년에는 기획실이 신설되었다. 한편 1990년말의 기구는 2실·11과·4사업소에 정원은 총 649명이었으나, 2002. 7월 말 현재는 1부군수, 1실 13개과, 2직속기관, 2사업소, 7개 읍·면과, 의회 사무과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의 수는 총 646명이다.

5) 남제주군

1946년 군제 실시 당시의 행정기구는 군수 아래 내무·산업·보건사회과 등 3개과를 두었는데 1950년대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

1961년 5·16 이후에는 내무·재무·교육·산업과 등 4개과로 확대 되었으며, 1961년말에는 보건사회과가 폐지되고 건설과와 공보실이 설치되었고, 1962년에는 농촌지도소가 신설되었으며, 1964년에는 교육자치제의 실시로 교육과가 교육청으로 분리 되었다. 1968년에는 산림과, 1969년에는 감사실, 1973년에는 새마을과 설치되었다. 또 1975년에는 민방위과가 신설되었으며, 새마을과가 폐지되었고 부군수제를 신설하였으며, 1980년에는 새마을과와 사회과가 부활되었다. 그리고 1985년에는 위민실이, 1987년에는 수산과와 해양관광단지개발사업소를 , 1988년에는 기획실이 신설되었다.

한편 1990년말의 기구는 2실·9과·3사업소에 정원은 총 574명이었으나, 2002. 7월 말 현재는 1부군수, 1실11개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 읍·면과 의회 사무과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의 수는 총570명이다.

4. 지방행정에서의 오현인의 활동

1951년 9월 25일 개교하고 195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오현인들이 지방행정에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도제(道制)가 실시되고도 한 참 후이다. 도제실시는 미군정 당시에 시작되었는데 관료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였다. 사회 질서가 잡히지도 않았지만 관직이 자리가 기존 관리 말고는 신설되는 일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권은 혁명공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른바 재건국민운동이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1961. 6. 20일 재건국민운동본부 제주도지부가 발족하게 되었다.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는 5.16 쿠데타의 의의와 신생활운동 실천을 주장하는 시국강연회와 농촌계몽운동을 위하여 강사 등 운동원을 공채로 모집하게 되는데 이 때 대학을 금방 졸업한 오현고 졸업생들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1964. 8월 재건국민운동 조직이 관 주도에서 순수 민간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했던 공채 출신들이 대거 이탈해 특채 또는 공채를 통하여 정식 제주도 혹은 시·군 공무원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여기에 모교 출신들도 포함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방행정에 오현인들이 활약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오현인들이 활동 상황을 졸업연도를 중심으로 단회기(1회-9회), 10회기(10회-25회) 이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1) 1~9회

오현고 졸업 10회까지는 제주농업고등학교 출신 일색이던 지방행정 관리들에게 도내에서 인문 고등학교로서 가장 개교가 빠른 오현고 출신들이 도전하면서 위치를 굳혔다고 할 수 있다. 2002. 7월 현재는 한 분도 남아 있지 않고 퇴직을 하여 후배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 1회 : • 김병오 : 한경면 출신, 농업분야에 기여한 바 매우 크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농촌지도소장을 역임했다. • 김종주 : 제주시 삼도동 출신, 한때 제주신문에서 사진부장을 지내다가 제주도 공보실에서 사진 기사로 근무하면서 행사장마다 깔끔한 차림에 오토바이를 타고 마그네슘 후레쉬를 터트리며 행사장을 종횡무진하고 다녔는데 제주도내에서는 행사 스냅 사진의 선구자다.

○ 2회 : • 고영배 : 제주시 용담동 출신으로 어승생용수관리사무소장을 지냈다. • 고희식 : 제주시 삼도동 출신으로 주로 제주시에서 공직을 맡았는데 각급계장과 삼도2동장을 역임했으며, 한 때 남주고등학교에서 교직에도 몸담은 바 있는데 현재는 평화의집 원장 직을 맡고 있다. • 이완수 :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출신으로 제주도청에서 축산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계장 등을 역임하였다. • 황인서 : 북제주군 신촌리 출신으로 초년에 농림부에서 공직을 맡다가 제주도에서는 민방위국장, 관광국장, 북제주군수, 제주시부시장을 역임했다.

- 3회 : 3회부터 도 국장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 강상진 :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출신으로 제주시청 민방위 과장, 산업과장을 역임하고 제주시의회 전문위원, 상의군경회 제주도지부 사무국장을 지냈다. • 김원규 : 제주시 내도동 출신으로 제주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였는데 새마을계장, 농정계장, 용담1동장 등을 역임하고 퇴직하였다. • 박운기 : 북제주군 한림읍 출신으로 북제주군 지적계장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적과장을 역임하고 삼도1동장을 지냈다. • 송무훈 : 제주시 일도동 출신으로 도에서 주요계장, 과장을 거쳐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고, 북제주군수, 서귀포시장을 역임하였다. • 이석중 :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출신으로 조천읍부읍장을 지냈다. • 지영용 :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출신으로 안덕면 부면장을 지냈다. • 한남섭 : 북제주군 함덕리 출신으로 개인 사업을 하다가 뒤 늦게 도청에서 들어와 새마을지도과와 보건위생과 등에서 영사기사로 봉직하다 퇴직하였다. • 홍성용 :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출신으로 제주시 감사실장, 도민방위과장, 통계전산담당관을 거쳐 도의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 4회 : 단 회기 중에서 가장 많은 12명의 지방행정 공무원을 배출했으며, 대부분 사무관 이상의 직급을 얻었다. • 강일효 : 제주시 이호동 출신으로 제주시 사회계장 등 요직 계장을 두루 거치고, 제주시 노형동장을 역임하였다. • 고원희 : 북제주군 한림읍 수원리 출신으로 대부분 제주시에서 공직을 했으며, 호적계장을 오래 지냈다. • 고중환 : 제주시 도련2동 출신으로 제주시에서 만 공무원을 하였는데 제주시 동부 지구 동사무소에서 잔뼈가 굵고, 삼양동과 화북동장을 지냈다. • 고중휴 : 제주시 도련1동 출신으로 제주시에서 만 공무원을 하였는데 제주시 동부 지구 동사무소에서 잔뼈가 굵고, 삼양동과 화북·일도2동장을 지냈다. • 김공식 : 제주시 오라동 출신으로 수의사로서 축산직으로 공무원을 했으며, 제주시 축산계장, 도 축산개발사업소 목장장, 도 수의계장·축산계장, 가축위생시험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 김두운 :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으로 초년에는 도청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사무관 시절부터 북제주군에서 내무과장을 지냈으며, 도 지방과장, 제주시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 기획실장을 거쳐 서귀포 부시장과 도청의 보사환경국장을 역임하였다. • 김문하 :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출신으로 주로 도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축산진흥원 서무계장을 지냈다. • 김우중 :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 출신으로 주로 제주시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오라·용담1·봉개동장, 제5대 제주시의회회원을 역임하였다. • 김인규 :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출신으로 도에서 계장, 과장을 두루 거치고 남제주군·북제주군수, 서귀포시장, 도청의 산업국장, 지역경제국장, 보사환경국장,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안 거친 곳이 없을 정도이며, 초대 도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하였다. • 김준희 : 남제주군 대정읍 출신으로 남제주군에 잠시 근무

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근 도에서 근무 하였으며, 도 농민교육원 서무계장을 거쳐 남제주군 대정읍장을 역임했다. •양재박 :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출신으로 주로 도에서만 근무 하였으며, 감사계장, 법무계장, 지방과 지도계장, 문화진흥원 문예부장을 거쳐 자연사박물관장을 역임하였다. •이진언 : 제주시 회천동 출신으로 제주시 감사실장, 세무·환경위생·회계·총무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홍영국 : 한림상명 출신으로 공업진흥청 사무과장을 역임하였다.

○ 5회 : •강경선 : 서귀포시 법환동 출신으로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의 과장을 거쳐 사무관으로 도청에 올라와 세정계장과 새마을계장 등을 지냈으나 일직 퇴직하여 개인 사업을 하였다. •강덕수 :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출신으로 북제주군에서 일선 읍면동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으며, 우도부민장을 역임하였다. •강중언 :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출신으로 초년에 남제주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무관으로 남제주군 내무과장과 서귀포시 총무과장 등을 거쳐 도 국민운동지원과장과 지방과장 등을 지냈으며, 제주시 사회산업국장과 남제군 부군수를 역임하였다. •강원혁 :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으로 제주도 통신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도청에서 통신계장을 지냈다. •김성휴 : 구좌읍 세화리 출신으로 도 사무관으로인구통계계장을 지냈다. •김정준 : 제주시 삼양1동 출신으로 도 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총무과장을 거쳐 도의회 전문위원과 총무담당관을 역임하였다. •김종철 : 제주시 건입동 출신으로 도 민원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을 거쳐 도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백수영 : 제주시 출신으로 북제주군에서 주로 근무하였으며, 북제주군 새마을과장을 거쳐, 제주시 세무과장과 지역경제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부두성 : 북제주군 구좌읍 상도리 출신으로 도 평가계장, 민원계장, 교육원 교무계장 등을 역임하였다. •안대영 :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출신으로 주로 제주도청에서만 근무를 하였는데 생활체육과장, 세정과장, 감사담당관, 문화진흥원장, 내무국장, 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였다. •임성진 : 제주시 일도동 출신으로 주로 북제주군에서 읍면동 등 일선에서 근무를 많이 하였는데 북제주군 재무계장을 지냈다.

○ 6회 : •고영기 : 제주시 용담동 출신으로 제주대 상학과 졸업. 주로 제주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재산세계장, 소득세계장, 법인계장, 등을 지냈다. •김남식 : 제주대학교 총무과장 역임. •김휘식 : 제주시 용담동 출신으로 제주도 세무조사계장, 민원계장, 사회복지계장 등을 역임. •강창제 : 조천읍 함덕리 출신으로 제주도교육청 보건체육계장을 역임. •문종채 : 제주시 삼도동 출신으로 제주시에서 세무과장, 새마을과장 등을 거쳐 도 국민운동지원과장, 사회진흥과장을 지냈으며, 도의회 전문위원 및 의사담당관과 북제주군부군수 및 제주도 문

화진홍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백광우: 제주시 화북동 출신으로 제주시 사회·수납 계장, 제주시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유상돈: 애월읍 납읍리 출신으로 도청에서 수산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수산과장, 어업지도과장을 지냈으며, 말년에는 행정직으로 도의회 전문위원과 의사담당관을 역임하였다. 유 동문은 수의사로서 가축이 아닌 물고기를 다루는 수산직에 근무한다 하여 항상 화재거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태중: 한경면 용수리 출신으로 제주대 법학과 졸업. 제주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국세청으로 옮겨 부산동래세무서, 제주세무서 계장 역임. •임승훈: 애월읍 하가리 출신으로 도 지역개발과장과 환경국장 등을 지냈으며, 제주시 도시계획국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하였다. •임희용: 한림읍 수원리 출신으로도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계장을 거쳐,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장, 조사연구부장을 역임하였다. •장석량: 제주시 삼양동 출신으로 주로 도청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감사과, 사회과 등에서 재직하였다. •채만화: 한림읍 대림리 출신으로 북제주군 내무과장, 도 법무·관광·감귤과장을 거쳐, 제주시에서는 시의회 사무국장, 환경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창숙: 제주시 노형동 출신으로 북제주·남제주군 부군수,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주도교통관광국장을 역임하였다. •홍대오: 한림읍 협재리 출신으로 도 회계과장과 예산담당관 등을 거쳤으며, 제주시 사회산업국장, 기획관리 실장을 역임하였다.

- 7회: •김계홍: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출신으로 도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민방위국장,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제주시 사회산업국장과 부시장 그리고 북제주군수를 지냈다. •김영호: 북제주군 한림읍 상명리 출신으로 제주시에서 공무원을 시작하여 도 총무과 인사담당과 공무원교육원, 국민운동지원과 등에서 근무를 하였다. •김효식: 북제주군 추자면 영흥리 출신으로 주로 추자면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추자부면장을 역임하였다. •문영호: 제주시 일도동 출신으로 제주시에서 공무원을 시작하여 도 예산계장,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농촌진흥원 총무과장 등을 지냈다. •부장군: 제주시 건입동 출신으로 6급까지는 도청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으나 사무관 시절에는 서귀포시 사회과장,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위생과장, 세무과장, 노형동장 등을 역임하였다. •신용대: 북제주군 애월읍 괏지리 출신으로 보건직으로 북제주군과 도청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북제주군 보건행정계장을 지냈다. •시인철: 제주시 건입동 출신으로 초년에는 도에서 주로 근무하여 도 관광과장을 지냈으며, 제주시 사회산업국장을 역임하였다. •장덕보: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출신으로 직업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특채 출신으로 남원읍장을 지냈다. •조운석: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출신으로 주로 북제주군에서 재무과장 등을 거쳐 사무관으로 도 인사계장과 도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 8회 : •고석중 :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출신으로 농업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북제주군 산업과장과 제주시 감귤특작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고영진 :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리 출신으로 제주도선관위 관리과장, 제주시선관위 사무국장, 이사관 승진과 함께 제주도선관위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김왕선 : 북제주군 애월 출신으로 도청에서 사무관으로 농어촌개발계장 등을 지내다가 퇴직하여 개인 사업으로 전환했다. •김홍두 : 제주시 삼도동 출신으로 제주시 공보실에서 재직하였다. •이홍식 :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출신으로 제주시와 도청에서 공직 생활을 하였는데, 도 경리계장, 도의회 자료계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 9회 : 9회 졸업생은 숫자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도지사와 부지사를 배출한 회기여서 공직생활도 정년으로 이끌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직을 떠난 회기이다. •강석정 : 서귀포시 하효동 출신으로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무관으로 도청에 올라왔으며, 서귀포시청 총무과장과 도청 관광·교통·총무과장 등을 거쳐 신구범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하였다. •강일부 :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출신으로 도청에서 농업직으로 재직하였다. •김호성 : 북제주군 조천읍 출신으로 제주시 사회산업국장·기획실장·부시장과 도 산업경제국장, 도의회사무처장,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였다. •윤태경 : 북제주군 애월읍 출신으로 도청에서 축산직으로 재직하였다. •서문현 :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출신으로 도 수의계장, 축산진흥원 가축위생시험과장·방역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신구범 :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출신으로서 지방공무원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행정고시 출신으로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중앙행정공무원이다. 그러나 관선 제주도지사로 임명되면서부터 정치공무원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주도에 변화를 몰고 온 장본인이며, 우리 오현고 총동창회에도 순기능 또는 역기능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관선과 민선 2대에 걸쳐 도지사를 지냈다.

2) 10회 이후

10회 이후 동문들은 현직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개인 별로 소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 10회에는 서귀포소방서장을 지낸 박희규, 제주세관장을 지낸 송광국, 남제주군 축산과장을 지낸 현관중, 축산진흥원 연구사로 재직한 현수화 등 4명이다.
- 11회에는 제주시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는 강헌치, 도자치재정과 평가계장으로 재직하는 양창희가 있다.

- 12회에는 지금은 잠시 행정자치부에서 외유하고 있는 김한욱 행자부 제주4.3지원단장(이사관)을 비롯한 김찬홍, 양창구, 이용규 등이 있는데 고영남과 김홍범은 퇴임했다.
- 13회에는 오맹기 북제주군 보건소장과 현재현 광역수자원 관리본부장이 있다.
- 14회에는 김창규 제주도 감사관을 비롯한 도시군에 13명이 파악된다.
- 15회에는 김형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장을 비롯한 12명이 도·시·군에서 봉사를 하였거나 하고있다.
- 16회에는 문수철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16명이 봉사하고 있다.
- 17회에는 양광호 도청 스포츠키획단장을 비롯한 14명이 동문들이 재직하고, 현결원(경남도청 건설도시국장) 등이 타도에서도 봉사를 하고있다.
- 18회에는 이창현 서귀포소방서장을 비롯한 5명이 있다.
- 19회에는 차우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기획조정담당관을 비롯한 9명이 재직하고 있다.
- 20회에는 김철수 한라수목원 소장을 비롯하여 9명이 도·시·군에서 봉사하고 있다.
- 21회에는 황용남 도의회 의사담당을 비롯한 19명이 재직하고 있다.
- 22회에는 오태휴 서귀포 정방동장을 비롯하여 15명이 봉사하고 있다.
- 23회는 양동곤 남제주군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하여 21명이 있다.
- 24회에는 박재철 북제주군 총무과장을 비롯하여 19명이 재직하고 있다.
- 25회 이후는 도·시·군별 동문회 명단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생략한다.

5. 도·시·군별 오현고동창회

1) 제주도청 오현고동문회

가. 탄생 배경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조직이 탄생하는 데는 그 계기가 있게 마련이다. 순수하게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과 모교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향우회는 지역이라는 공동체로 결합하면서 객지에서서의 어려움을 달래고 서로 의지하며 현지인들과 대항하려는 힘을 얻고자 함이며, 동문회 역시 동문이라는 공동체로 결합함은 물론 서로 의지하고 그들만이 특별한 관계를 맺어 차별화 하려는 의식이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어느 특정인의 강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탄생하거나, 특정 목적이 있을 때, 특히 선거철을 앞선 시점에서 조직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조직은 조직의 갈등을 조절하고 구성원이 가려진 능력을 발견하는 등 여러 가지 조직발전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정에 기인하여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폐해가

있다고 하여 굵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한다. 제주도청 동문회 결성도 뜻있는 동문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특정한 계기가 사라지면 잊어지곤 하였다.

1985년과 1987년에 홍대오(6회) 동문의 제안으로 당시 도청 서무과와 감사과에 근무하던 황용남(21회)이 실무를 맡아 매우 구체적으로 명단확보와 회칙(안) 마련 등 제반 준비를 한 적이 있었다. 1987년 2월에는 발기인 모임을 갖기로 하여 신제주 소재 모식당에 예약을 하였는데 갑자기 당시 모 최 고위직 선배께서 취소하라고 하였다. 당시 부지사는 육지부 출신이었는데 부지사의 지시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도내 ㉠고 출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도청 출입하는 Y 씨가 오현고등학교는 고위 공무원도 많고, 인원도 많으므로 세력화 되어서 조직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건의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1989년 8월 12일 제주도청 제주일고 동문회(1975년) 보다도 14년이나 늦게 탄생하게 되었다.

발기인 명단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동문회 결성을 위하여 김종주(1회), 김두운(4회), 양재박(4회), 안대영(5회), 문종채(6회), 홍대오(6회), 유상돈(6회), 시인철(7회), 이흥식(8회), 김호성(9회), 윤태경(9회), 김한욱(12회), 강성보(19회), 박승봉(19회), 박영식(21회) 동문의 노고가 많았다.

동창회는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의 민선 도지사가 출범하면서 정치에 휘말리게 되는데, 모교 출신인 신구범(9회) 도지사 시절에는 매우 활성화되다가 민선 2기 도지사가 들어서면서 위축되어 지금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곧 새로운 회장단을 맞이하여 활발한 동문회 활동을 하리라 기대해 보면서 지금까지의 활동 연혁을 요약한다.

나. 연혁

- 1989. 7. 28 : 발기인 모임(신제주 소재 삼호정, 16명 참석)
 - 발기인 : 명단은 자료 불충분으로 소개 못함
- 1989. 8. 12 : 창립총회(파라다이스회관, 90명 참석)
 - 임시의장 : 김종주(1회) - 사 회 : 문종채(6회)
 - 경과보고 : 홍대오(6회) - 초대회장 : 김두운(4회)
 - ☞ 홍경식(3회) 총동문회장 참석 격려
- 1990. 1. 31 : 정기총회(여성회관 3층, 33명 참석)
 - 1989년도 결산 보고 및 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1991. 4. 2 : 정기총회(파라다이스회관, 45명 참석)
 - 임원 개선 : 현 임원 전원 유임
- 1992. 2. 22 : 정기총회(여성회관, 56명 참석)

- 임원 개선 : 강중언(5회) 회장 선출
- 1993. 2. 27 : 정기총회(신제주 신남도회관, 59명 참석)
 - 결산보고 와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1994. 3. 18 : 정기총회(신제주 고향산천, 51명 참석)
 - 임원 개선 : 홍대오(6회) 회장 선출
- 1995. 10. 18 : 임원회의(신제주 수전회관, 13명 참석)
- 1996. 2. 15 : 정기총회(신제주 신만리장성, 62명 참석)
 - 임원개선 : 문영호(7회) 회장 선출
- 1996. 6. 2 : 한라산 등반(임시총회)
- 1997. 7. 11 : 이사회 개최(정기총회 가름, 신만리장성)
- 1997. 11. 2 : 한라산 등반(임시총회, 90명 참석)
- 1998. 2. 26 : 정기총회(신제주 미가람, 120명 참석)
 - 임원 개선 : 이흥식(8회) 회장 선출
- 1998. 3. 26 : 임원회의(신제주 사방팔방횃집, 30명 참석)

다. 주요활동

제주도청 오현고 동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과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첫째, 회원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결속을 시켜주는 경조 사업을 하고 있으며,

둘째, 모교 발전을 위해서는 모교의 각종 문화 체육 행사시 참여와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고,

셋째, 장학 사업은 아직은 실적이 미미하다.

넷째, 그 밖에 회원 관리를 위한 수첩발간, 유공 회원에 대한 공로패 및 재직 기념패 전달, 체육대회, 야유회, 등반대회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며 건강한 지방 행정인을 육성하고 있다.

라. 역대임원

대수	기 간	회 장		부 회 장		총 무	
		이 름	회수	이 름	회수	이 름	회수
1대	1989. 8. 12 ~1991. 1. 30	김두운	4회	홍대오	6회	윤태경 박승봉	9회 19회
2대	1991. 1. 31 ~1992. 2. 21	김두운	4회	홍대오	6회	강성보	19회
3대	1992. 2. 22 ~1994. 3. 17	강중언	5회	시인철	7회	김형수 강성보	15회 19회
4대	1994. 3. 18 ~1996. 2. 14	홍대오	6회	시인철	7회	박철수 강성보	17회 19회
5대	1996. 2. 15 ~1998. 2. 25	문영호	7회	이홍식	8회	김영주	26회
6대	1998. 2. 26 ~	이홍식	8회	강석정	9회	황용남	21회

마. 회원 현황(2001. 6월 현재)

회기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급)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급)
계	127명				김형수	관광문화국	국 장
11회	양창희	보건위생과	위생계장	15회	홍근표	건 설 과	행정6급
12회	이용규	환경정책과	환경평가계장		한석규	건설과(중기)	기능직
	김찬홍	축 정 과	가축위생계장	16회	오윤보	축산진흥원	사무관
13회	현재현	도지사비서실	비서실장		문수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오맹기	보건위생과	과 장		양태호	문화진흥원	문예진흥과장
14회	김창규	광역수자원본부	본부장		양원현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계장
	김홍수	총무과	인사계장	정동주	재난관리과	사고대책	
	변용관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계장	17회	박철수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사무관
	이영식	공무원교육원	사회연수계장		문종현	자치재정과	경영수입계장
	송성호	공무원교육원	교무계장		양광호	스포츠기획단	단 장
	김관후	향토자료실	별정5급		김정호	경제정책과	취업관리계장
	홍문삼	총무과	용도계장		김동성	경제정책과	에너지계장
	정성용	119 상황실	행정5급		김상훈	재난관리과	안전점검기동반장
	변태경	농업기술원	행정6급		강영호	관광진흥과	관장지도계장
	김진희	축진원, 위생과	과 장		18회	이창현	서귀포소방서

회기	성명	근무부서	직위(급)	회기	성명	근무부서	직위(급)	
19회	박승봉	도의회사무처	총무계장	25회	강성근	농업기술원	연구사	
	차우진	관광협회	사무국장		26회	박시영	도의회,공보계	행정6급
	강성보	자치재정과	지적6급			김덕삼		행정6급
20회	김철수	한라수목시험소	소장	김영주		예산과,예산2계	계장	
	김영호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사	문홍석	자치재정과	행정7급		
21회	김경옥	119상황실	별정7급	27회	박용석	수산연구소	기술계장	
	황용남	도의회사무처	의사계장		강창보	상수도본부,급수과	행정7급	
	우명훈	4.3지원사업소	건축5급		김승원	감사과,조사계	건축7급	
	김영일	재난관리과	사무관		김상영	자치행정과	행정7급	
	김창식	지역정책과	행정6급		김기홍	기획실,기획계	행정7급	
22회	김철균	농업기술원,소득계	연구사	김희철	도의회,총무계	행정7급		
	강인택	총무과,계약지출	행정6급	현근협	기획실, 기획계	행정6급		
23회	강충희	보건환경연구원	행정6급	김청식	감귤과,	농업7급		
	강인성	자치행정과	행정6급	김형성	농업특작과	농업7급		
	오형삼	도의회,전문위원실	행정6급	이승훈	해양수산과	수산7급		
	양계청	자연사박물관	연구사	변대연	119상황실	기능7급		
24회	전재도	공무원교육원	행정6급	문응식	축산진흥원	행정6급		
	홍성택	상수도본부,생산관리	전기5급	박두원	산림과,산림정책계	임업7급		
	강왕진	예산담당관실	행정6급	송승운	농업기술원,과수과	연구사		
	고병두	경제정책과	노사계장	오영오	자치행정과	행정7급		
	김진석	사회복지과	복지계장	문경진	섬문화조직위	행정6급		
	이동욱	상수도본부,생산관리	전기6급	이지훈	행자부4.3지원단	행정6급		
	김봉찬	농업기술원,농업환경	연구사	부태진	총무과,계약지출계	행정7급		
25회	강성수	기획실,조직관리계	행정7급	28회	고영철	기획실,조직관리계	행정7급	
	고태빈	도지사사무처,경리계	행정7급		김기범	감사과, 감사계	행정7급	
	강동현	공보관실,보도계	행정6급		김시형	환경정책과	행정7급	
	홍봉기	관광진흥과	마케팅계장		김석훈	문화진흥원,공연과	별정7급	
	김정주	행정부지사실	행정6급		29회	윤인성	여성정책과,보육계	별정6급
	김찬호	기획실,의회계	행정6급			임병훈	수목시험소	임원7급
	현경식	환경정책과	보건7급			김병찬	민방위과,경보통제	전통6급
	양영환	자연사박물관	광식물과장			고응기	자치재정과	행정7급
문봉춘	보건연구원,미생물과	연구사	김영훈	축진원, 진흥과	전문위원			

회기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급)	회기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급)
29회	황재중	농업기술원, 원종장	연구사	33회	현의석	총무과, 발간실	별정7급
	김대근	예산과, 예산2계	행정6급		김석만	농기원, 농촌지도	연구사
30회	현봉추	도의회, 전문위원실	행정7급		강중훈	농기원, 감귤기술	연구사
	박영수	관광진흥과,	행정7급	34회	양동진	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7급
	강상용	교통행정과	행정7급		강호성	한라산, 관리과	토목7급
	신창훈	수목시험소	연구사	김정철	자치행정과	전산8급	
31회	현동철	교통행정과	별정6급	변재구	정보통신과	통신8급	
	송정흡	농업기술원	연구사	박영철	농기원, 감귤기술과	연구사	
	강형식	농업기술원	연구사	35회	이남희	보건위생과	행정7급
32회	좌정규	월드컵조직위(파견)	행정7급		강선부	지역정책과, 도시계	토목8급
	김창완	공보실, 공보계	행정7급		김태호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축8급
	고찬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김원병	자연사박물관(동물)	별정7급
	강호준	농기술원, 농환경과	연구사	36회	강태석	정보통신과, 정보화	전산8급
33회	김태현	보건연구원, 수질과	연구사	37회	홍동국	수자원본부(생산)	전통8급
	김형철	보건연구원, 대기과	연구사		김대신	수목시험소	연구사
		김길성	보건연구원, 수질과	연구사	38회	채경원	총무과, 인사계

2) 제주시청 오현고 동문회

가. 탄생배경

제주시청 현우회는 동문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과 제주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주시청 재직 오현인들의 뜻을 모아 지난 1985. 12월 재직 동문 38명이 모여 가칭 제주시청 현우회 창립 예비모임을 거쳐 1986. 2. 1 회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진언(4회 : 당시 제주시 감사실장)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정식 출범을 하게 되었다.

나. 주요활동사항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현고 동문으로서 화합과 단결, 전진을 다짐하는 정례 체육행사 및 등반대회, 하계 야유회 등을 통해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오현인의 날’, ‘20회기 및 30회기 별 체육행사’ 등 각종 모교 동문 행사에 그 어느 동문회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동문 회원들의 경조사는 물론 가사 사정으로 형편이 여의치 못한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오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시민을 위

한 참다운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오늘날도 성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청 현우회는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시정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함은 물론, 모교 발전을 위해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다. 역대 임원

○ 제1대(1986 ~ 1987)

- 회 장 : 이진언(4회) • 부회장 : 시인철(7회), 양영종(8회), 현재현(13회)
- 총 무 : 박승봉(19회)

○ 제2대(1988 ~ 1989)

- 회 장 : 이진언(4회) • 부회장 : 양영종(8회), 강헌치(11회)
- 총 무 : 김강희(18회)

○ 제3대(1990 ~ 1991)

- 회 장 : 부장균(7회) • 부회장 : 양영종(8회), 강헌치(11회), 양창구(17회)
- 총 무 : 최현선(19회)

○ 제4대(1992 ~ 1993)

- 회 장 : 강헌치(11회) • 부회장 : 김성인(15회), 현병희(16회), 박승봉(19회)
- 총 무 : 장호성(21회)외 21회 동문

○ 제5대(1994 ~ 1995)

- 회 장 : 강헌치(11회) • 부회장 : 김성인(15회), 현병희(16회), 박승봉(19회)
- 총 무 : 장호성(21회)외 21회 동문

○ 제6대(1996 ~ 1997)

- 회 장 : 김성인(15회) • 부회장 : 현병희(16회), 김대준(18회), 장호성(21회)
- 총 무 : 강철수(23회)외 22회 동문

○ 제7대(1998 ~ 1999)

- 회 장 : 현병희(16회) • 부회장 : 김대준(18회), 박영식(21회), 장호성(21)
- 총 무 : 양치석(25회)외 25회 동문

○ 제8대(2000 ~ 2002현재)

- 회 장 : 김창아(15회) • 부회장 : 김대준(18회), 박영식(21회), 장호성(21)
- 총 무 : 이후성(26회)외 26회 동문

라. 회원 명단

○ 총인원 : 119명(5급이상 : 12명, 6급 : 20명, 7급이하 : 87명)

회기	성 명	근무부서	전 화		직위(급)
			자 택	사무실	
11	강 현 치	시의회사무국	725-1679	750-7504	사무국장
13	김 영 준		753-9966	750-7204	부시장
14	김 재 영	상하수도사업소	757-8030	750-7491	
15	김 성 인	상하수도사업소	757-5100	750-7207	사업소장
	채 종 인	농업기술센터	755-5477	750-7551	
	김 창 아	총 무 과	722-1024	750-7210	과 장(회장)
	김 태 원	용담2동	723-1331	750-7608	동 장
	현 준 호	상하수도사업소	702-7139	750-7592	
16	현 병 희	정보화지원사업단	753-2060	750-7302	단 장
	강 용 희	위 생 과	744-7033	750-7324	위생지도담당
17	김 성 수	농업기술센터	746-6832	750-7681	
	전 성 보	종합경기장	743-5945	750-7224	
18	김 대 준	종합민원 담당관실	753-6636	750-7250	과 장(부회장)
	김 창 우	보 건 소	753-2719	750-7690	소 장
19	김 성 수	종합민원담당관실	753-9252	750-7244	호적담당
	최 현 선	자치행정담당관실	757-4862	750-7318	민간협력담당
	한 용 근	상하수도사업소	725-5409	750-7519	
20	장 인 홍	총 무 과 (위생처리장과견근무)	763-0708	750-7554	
	임 택 훈	탐라도서관	722-5371	750-7557	
21	박 영 식	건축허가민원과	746-7014	750-7404	과 장(부회장)
	김 방 식	환경관리과	702-2902	750-7331	환경관리담당
	장 호 성	화 북 동	753-6342	750-7610	동 장(부회장)
	송 두 식	기획감사담당관실	757-2916	750-7218	조사담당(감사)
	강 용 철	세무1과	747-5766	750-7281	세정담당
	변 근 후	기획감사담당관실	753-0326	750-7213	
	부 재 창	보 건 소	722-2810	750-7670	검사팀장
한 태 룡	환경관리과	757-4570	750-7335	환경미화담당	
22	고 철 수	녹 지 과	711-2621	750-7421	

회기	성명	근무부서	전화		직위(급)
			자택	사무실	
22	김영준	우당 도서관	783-6683	750-7555	
	송형석	일도 2동	755-3509	750-7602	주무
	장용언	교통행정과	744-1768	750-7315	
23	진창안	사회복지과	753-4069	750-7314	자활복지담당
	강영식	이도 1동	725-1127	750-7603	
	김승철	환경관리과	758-6537	750-7332	환경지도담당
	박영규	문화체육과	783-7354	750-7251	체육지원담당
	문영민	위생과	752-6660	750-7321	
	강동화	교통행정과	758-1997	750-7364	교통행정담당
	강철수	일도 1동	753-7301	750-7601	동장
	양태영	환경관리과	726-0805	750-7335	
	김동근	기획감사담당관실	756-1447	750-7211	기획담당
24	양전국	공보담당관실	725-4550	750-7226	
	강승조	종합민원담당관실	747-6983	750-7244	
	김창균	상하수도사업소	742-5345	750-7522	
25	김영훈	관광경영과	756-8036	750-7454	관광진흥담당
	한재호	관광경영과	752-5361	750-7413	
	김태건	지역경제과	756-0187	750-7355	
	양창용	상하수도사업소	721-2873	750-7522	
	강승호	건설과	755-7845	750-7496	
	양치석	교통행정과	713-5761	750-7390	과장
26	이후성	자치행정담당관실	757-9546	750-7234	총무단(수석)
	고창규	건설과	753-6745	750-7483	총무단
	한경용	상하수도사업소	752-7635	750-7688	총무단
	강동우	총무과	783-7225	750-7272	총무단
	양영문	농업기술센터	711-8824	750-7681	총무단
	김남원	공보담당관실	726-8650	750-7221	총무단
27	박근수	건축허가민원과	744-0321	750-7474	환경민원담당
	김창조	녹지과	752-5200	750-7511	녹지담당
	강원호	세무1과	711-0818	750-7281	
	고광석	일도 1동	756-8423	750-7601	

회기	성 명	근무부서	전 화		직위(급)
			자 택	사무실	
27	강 성 남	자치행정담당관실	742-5538	750-7248	
	윤 선 홍	공보담당관실	753-6843	750-7221	보도담당
	김 성 수	사회복지과	711-6369	750-7311	
	이 규 선	용담1동	743-1072	750-7607	
	김 영 철	산 업 과	721-7428	750-7411	
28	홍 성 진	산 업 과	744-0806	750-7371	
	이 승 훈	위 생 과	756-2162	750-7321	
	김 천 수	삼도1동	743-5923	750-7605	
	문 상 필	건축민원허가과	755-7850	750-7472	
	김 덕 언	외 도 동	756-7915	750-7617	
	이 철 수	세무2과	725-4481	750-7292	
	홍 재 석	자치행정담당관실	753-0815	750-7264	
29	강 경 남	자치행정담당관실	757-8873	750-7318	
	김 행 석	제주시의회사무국	755-0879	750-7507	
	윤 창 호	사회복지과	757-9330	750-7313	
	김 철 용	탐라도서관	757-4532	750-7557	
	윤 승 환	여성복지과	742-9909	750-7341	
30	강 경 업	종합경기장	722-8826	750-7553	
	김 성 진	아 라 동	721-1840	750-7633	
	부 춘 성	지역경제과	724-5563	750-7353	
31	이 상 철	교통행정과	757-9407	750-7363	
	김 원 희	상하수도사업소	758-8681	750-7592	
	강 성 우	일도2동	713-3677	750-7602	
32	강 경 호	정보화기획단	753-5494	750-7401	
	양 철 안	용담2동	712-3126	750-7608	
	강 무 성	세무2과	722-5492	750-7291	
	고 영 남	세무2과	759-0926	750-7291	
33	김 상 빈	자치행정담당관실	747-2338	750-7308	
	곽 중 주	산 업 과	712-7043	750-7411	
	김 영 익	연 동	723-1794	750-7615	
34	고 상 익	상하수도사업소	757-1439	750-7597	

회기	성명	근무부서	전화		직위(급)
			자택	사무실	
34	강철남	여성복지과	799-0147	750-7341	
	문석훈	총무과	712-6064	750-7209	
	정창보	위생과	758-9521	750-7322	
	황태훈	세무2과	755-8475	750-7283	
	강준학	우당도서관	721-5735	750-7555	
	현태익	정보화기획단	757-9683	750-7345	
35	김정수	일도2동	757-2259	750-7602	
	김효봉	세무2과	783-6579	750-7291	
	장행석	환경관리과	757-1875	750-7337	
	김창수	종합경기장	744-8302	750-7553	
	박동현	환경관리과	721-4726	750-7335	
	고창기	세무1과	757-7098	750-7281	
	김희준	아라동	744-5754	750-7613	
	김형준	일도2동	726-3785	750-7602	
	한성철	세무1과	724-5782	750-7281	
37	현윤학	건설과	756-8515	750-7496	
	박태근	건축허가민원과	756-5013	750-7456	
	박기완	사회복지과	723-0129	750-7348	
	김양보	환경관리과	783-6547	750-7340	과장
	강영호	건설과	721-4680	750-7498	
38	양인창	정보화기획단	702-4340	750-7463	
	이승철	상하수도사업소	702-7431	750-7262	
	김중훈	종합경기장	725-0537	750-7683	
39	고관선	기획감사담당관실	724-6935	750-7213	
	강경필	총무과	757-3409	750-7326	
	강동훈	교통행정과	746-4367	750-7245	
40	오영수	사회복지과	746-6314	750-7311	
43	김영록	여성복지과	783-6237		
46	이용호	종합경기장	753-2890	753-2454	

3) 서귀포시청 오현고등문화회

○ 연혁 : 1981년도(시 개칭일 창립)

○ 주요활동 사례

- 동문 회원간 친목도모 : 분기 1회
- 동문 회원간 경조사 부조 : 수시
- 산남지역 동문회 체육대회 참가 : 년 1회
- 제주도 총동문회 체육대회 참가 : 년 1회
 - 1996. 5. 7 - 모교 에어콘 증정
 - 1996. 5. 22 - 30회기체육대회 찬조금지원
 - 1997. 5. 2 - 산남지역 총동창회 체육대회 지원
 - 1998. 9. 30 - 총동창회 체육대회 행사지원(제9회 오현인의날)
 - 1999. 4. 16 - 산남지역 오현인의날 행사지원
 - 1999. 6. 12 - 서귀포시청 동문 친선 축구대회
 - 1999. 6. 12 - 서귀포시청 동문회원 타시군전출자 감사패전달
 - 1999. 9. 16 - 오현인의날 행사 찬조금지원
 - 2000. 4. 17 - 30회기체육대회 찬조금지원
 - 2000.11. 8 - 오현동문회 찬조금 지원
 - 2001. 4. 20 - 산남지역 오현인의날 행사지원
 - 2001. 5. 16 - 20회기체육대회 찬조금지원
 - 2001.11. 5 - 오현인의날 행사 찬조금지원
 - 2002. 5. 21 - 제주월드컵경기장 모교생 방문시 안내 및 음료제공

○ 회원현황(2002. 5. 31현재)

졸업	성명	현직책	직위(급)	사무실	비고
14	윤여은	종합문예사업소장	행정5급	735-3554	고문
16	류상부	환경녹지과장	행정5급	735-3330	고문
21	오학운		청원경찰	735-3458	
22	오테후	월드컵행정지원팀장	행정5급	735-3325	회장
22	고영수	예방의약담당	보건6급	735-3550	
22	오경훈		행정7급	735-3217	

졸업	성명	현직책	직위(급)	사무실	비고
22	오성순	천제연관리담당	화공6급	735-3561	
23	오용승	재산관리담당	행정6급	735-3273	
23	강문송	건설행정담당	행정6급	735-3481	
23	김인추	수납담당	행정6급	735-3284	
23	이경배		수산6급	735-3456	부회장
23	오문옥	민방위담당	행정6급	735-3264	
24	김찬길	공기업담당	행정6급	735-3525	
25	고창소		행정6급	735-3456	
25	김정학	의사담당	행정6급	735-3508	
26	김동만	서부2처리장담당	기계6급	735-3556	
26	강정국		행정7급	735-3601	
27	김성태	감귤랜드조성담당	행정6급	735-3491	
27	김기용	위생관리담당	보건6급	735-3323	
27	김태엽	대외협력담당	행정6급	735-3327	
27	홍성보	환경관리담당	행정6급	735-3331	
28	강명관	환경지도담당	보건6급	735-3332	
28	부창홍		행정7급	735-3238	
28	강경식	지역경제담당	행정6급	735-3351	
28	김구옥		행정7급	735-3251	
29	이기택	주무	행정6급	735-3626	
30	김태식	문화공보실	행정7급	735-3221	
30	고영관	관광지사업소	행정7급	735-3555	
32	강경돈	서흥동	행정7급	735-3608	
32	강용덕	세무과	세무8급	735-3284	총무
32	임용준	보건소	의료9급	735-3550	
34	김용탁	도시과	토목7급	735-3451	
34	임기범	의회사무과	행정7급	735-3508	
36	이승철	세무과	세무8급	735-3284	
37	좌철용	대륜동	행정9급	735-3609	
37	강필구	정방동	행정9급	735-3602	

4) 북제주군청 오현고동문화

가. 연혁

- 1996. 1. 21 : 동문화 결성총회 (노형소재 광장가든, 61명참석)
 - 문중채(6회) 부군수를 중심으로 윤창호(21회) · 고승립(23회)군의원 등이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회장은 문중헌(지역경제과장 · 17회)가 선출됨
- 1996.11. 8 : 1996년 임시총회 개최 (오현고앞 송원가든, 58명참석)
- 1997. 2. 13 : 1997년 정기총회 (장소 : 노형소재 광장가든, 66명참석) - 2대 양동원 (17회 · 문화공보실장)회장 선출
- 1997. 5. 20 : 동문화 수첩제작 배부 (총100부 제작)
- 1997. 7. 20 : 하계단합대회 개최 (삼양해수욕장 · 80명참석)
 - 배낚시, 미니축구, 배구, 오락행사 개최
- 1998. 2. 20 : 1998년 정기총회 개최 (할망순대 · 65명참석)
 - 2대 양동원(17회 · 사회진흥과장) 회장 유임
- 1998. 11. 5 : 1998년 임시총회 개최 (소나무집 · 55명참석)
 - 문중채 고문(문화진흥원장 전보) 송별연
- 2000. 6. 30 : 2000년 정기총회 개최 (광장가든 · 55명참석)
 - 김창규부군수 취임 축하연, 3대 박재철(24회 · 총무과장) 회장 선출
- 2002. 3. 29 : 2002년 정기총회 개최 (현우촌 · 60명참석)
 - 3대 박재철(24회 · 총무과장) 회장 유임

나. 주요활동실적

○ 주요회의실적

- 1996. 1. 21년 창립한 이래 매년 정기 ·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임원모임을 통해 수첩발간 및 하계단합행사등을 논의하였고, 주요임원 송별연, 군의원당선축하연등을 통하여 동문화원화합 및 단결하는 기회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주요추진사업

- 도민체전 오현고 선수단 격려 : 1996년 5월
- 각회기별 체육대회 음료수전달 : 1996~1997년
- 각회기별 체육대회 찬조금(광고)전달 : 1996~2002년

- 오현의날 찬조금전달 : 1996~2002년
- 회원수첩발간 · (1회)
- 회원경조사참석 · 50여회
- 회원단합행사개최 · 13회개최
- 퇴직회원송별연개최 · 3회

다. 주요회원

- 문중채 (6회) : 부군수역임 (재임기간 : 1995.7.25 ~ 1998.9.14)
 - 경력 : 제주도청 사회진흥과장, 제주도의회 사무처 전문위원 · 의사담당관 등 역임
북제주군부군수, 문화진흥원장 (현)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장
 - 수상 :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표창수상
- 김창규 (14회) : 부군수역임 (재임기간 : 2000.2.22 ~ 2001.2.19)
 - 경력 : 제주도청 민방위, 평가, 의사계장,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 북제주부군수, (현) 제
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 문종현 (17회) : 1대회장역임 (재임기간 : 1996.1.21 ~ 1997.1.21)
 - 경력 : 북제주군청 공보 · 예산계장, 조천 · 구좌부읍장, 민방위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적
과장, (현) 제주도청 자치재정과 경영수익계장
 - 표창 : 내무부장관, 제주도지사 표창수상
- 양동원 (17회) : 2대회장역임 (재임기간 : 1997.1.21 ~ 2000.6.30)
 - 경력 : 북제주군청 환경관리 · 세정계장, 문화공보실장, 우도면장, (현)문화유적관리소장
 - 표창 : 내무부장관 표창수상
- 박재철 (24회) : 3대회장역임 (재임기간 : 2000.7.1 ~ 2002.현재)
 - 경력 : 북제주군청 기획 · 행정계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재정과장, (현)총무과장
 - 표창 : 대통령 표창수상

라. 임원 및 회원명단

- 고 문 : 양동원(17회)
- 회 장 : 박재철(24회)
- 부 회 장 : 김성구(25회), 김성관(26회)
- 총 무 : 정봉섭(27회), 김대원(39회)
- 감 사 : 박일홍(26회), 김재선(27회)

- 이 사 : 신현철(14회), 홍승기(14회), 김성호(16회), 고석팔(16회), 강후진(20회)
김덕철(21회), 김정민(22회), 고시호(24회), 김남화(24회), 양익석(26회)
윤승언(26회), 조맹용(28회), 박경수(29회)
- 회 원 : 임철호(14회), 원동길(20회), 김봉규(21회), 강관수(22회), 서영관(24회)
고구호(24회), 강필립(24회), 문병혁(25회), 이상준(25회), 고영진(26회)
이상형(26회), 양익재(26회), 조영실(26회), 현세진(27회), 김재희(27회)
김대훈(27회), 현희철(28회), 강창인(28회), 강승범(28회), 김태현(29회)
좌재웅(29회), 임영준(30회), 김병운(30회), 한재일(31회), 김태우(32회)
한재영(32회), 우차훈(32회), 김철구(33회), 현승호(33회), 좌재봉(33회)
김문규(33회), 김철영(34회), 박성홍(34회), 채종우(35회), 김근영(35회)
김병수(35회), 김기완(36회), 진상민(36회), 양재석(38회), 양재석(38회)
강동균(38회), 양행석(38회), 오태균(38회), 오정훈(38회), 강병철(38회)
홍상표(39회), 이상현(39회), 부재운(39회), 송상협(39회), 이승봉(39회)

5) 남제주군청 오현고동문회

가. 연혁

- 창 립 : 1990년 1월 1일
 - 명 칭 : 남제주군 현우회
 - 목 적 : 직장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지역사회 및 모교발전에 기여
 - 회원의 자격 : 오현고 출신 동문으로 남제주군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창립시 중심 역할을 한 회원 : 15회 현사택 동문
- 주요 활동 상황
- 정기총회 : 매년 1월
 - 임시총회 : 회원 1/3이상 요구시
 - 상 조 : 회원의 결혼, 상례, 입주, 축하연, 경조일 등
 - 기 타 친목도모를 위한 야유회 실시
 - 오현인의 날 행사, 산남지역 오현 가족 체육대회시 참가 및 찬조금 지급

□ 회원증 주요 간부

- 김준희(4회) 대정읍장 - 퇴임
- 현창숙(5회) 부군수- 퇴임, 강중언(5회) 부군수 - 퇴임
- 현사택(15회) 현우회장 - 퇴임
- 김강희(18회) 산업경제과장, 현우회장 - 퇴임

□ 회원 현황

(2002. 7. 15현재)

회기	성명	소속	직위(급)	비고
16	강홍순	대정읍민원계장	행정6급	
18	김명원	축산과장	축산무관	
18	우명출	농업기획계장	행정6급	
19	현태우	경제교통과장	행정사무관	
21	강원규	안덕면재무계장	행정6급	
21	현병휴	환경지도계장	행정6급	
22	송재근	문화계장	행정6급	
22	김광훈	성산읍재무계장	행정6급	
23	양동근	환경관리과장	행정사무관	회장
23	현태화	성산읍총무계장	행정6급	
24	현성호	행정계장	행정6급	
24	문석관	환경관리과	기능직	
25	현창행	경리계장	행정6급	
25	김성택	사회복지여성과	행정7급	
25	장길상	남원읍	수산7급	
26	진안민	경영계장	행정6급	
27	정영창	기획감사실	행정7급	총무
27	김상영	총무과	행정6급	
28	강창우	남원읍재무계장	행정6급	
29	강희철	축산임업과	임업7급	
29	김용덕	해양수산과	수산7급	
32	고임욱	성산읍	세무8급	
33	정현부	총무과	행정8급	

회기	성 명	소 속	직 위(급)	비 고
33	김준하	총무과	행정7급	
34	김용중	총무과	행정7급	
37	강승철	성산읍	세무8급	
37	이병철	건설과	건축9급	
39	조상범	사무관(제주도파견)	행정사무관	

□ 현재 임원

- 회 장 : 양동근(23회) - 환경관리과장
- 총 무 : 정영창(27회) - 기획감사실 근무

6. 소방공무원 재직 동문

소방조직은 현재 내무부 민방위본부에 소방국과 중앙소방학교가 있고, 시·도에 15개 소방본부가 있으며 그 산하에 지방소방학교와 115개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에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이 있으며 각각 소방정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의 계급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국가소방공무원에는 최고직위로 소방총감이 있으며,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정감 등과 같이 계급 앞에 '지방'을 붙여 부른다는 점이 다르다. 소방업무는 주로 화재의 예방, 소화활동, 구급 및 구조, 화재의 조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제주소방서의 조직은 2과 5담당, 11파출소(제주시 6개, 북제주군 5개), 2구조대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현동문중 남광희·김윤희(8), 김수웅(9) 동문은 퇴임하였으며 박희규(10) 동문은 제주소방서장과 서귀포소방서장을 지냈다. 현재 주요간부직에는 제주소방서 소방과장 이도혁(15) 동문, 서귀포소방서 소방과장 강철용(16) 동문, 서귀포소방서장(18) 이창현(18) 동문이 있다.

회기	성 명	계 급	근 무 처	회기	성 명	계 급	근 무 처
15	이도혁	소방령	제주소방서 소방과장	22	임경훈	소방장	제주소방소 오라파출소
16	강철용	소방령	서귀포소방소 방호과장	23	변창환	소방장	서귀포소방소 표선파출소
16	정충권	소방교	서귀포소방서 성산파출소	25	김봉요	소방장	제주소방서 오라파출소
18	이창현	소방정	서귀포소방서장	27	변수남	소방경	제주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19	전재남	소방령	제주도소방본부 지령담당	27	한석행	소방위	중앙소방학교
21	강상주	소방위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28	오석준	소방교	제주소방서 이도파출소

회기	성명	계급	근무처	회기	성명	계급	근무처
29	강갑수	소방장	제주소방서 화북파출소	35	김영석	소방사	제주소방서 한림파출소
29	김인홍	소방장	제주소방본부 상황실	35	김윤탁	소방교	제주소방서 구좌파출소
29	김호택	소방장	제주소방서 애월파출소	35	김종훈	소방사	제주소방서 구좌파출소
30	고화수	소방장	제주소방서 오라파출소	35	박남진	소방교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30	김영호	소방장	제주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35	변종철	소방교	제주소방서 연동파출소
30	양영철	소방교	제주소방서 오라파출소	35	양윤석	소방교	제주소방서 방호과
31	고남기	소방교	제주소방서 방호과	35	홍경진	소방장	제주소방서 기획홍보팀
31	김성효	소방장	제주소방서 방호과	35	홍석표	소방교	제주소방서 조천파출소
31	박대수	소방장	제주소방서 항만파출소	35	홍석표	소방교	제주소방서 조천파출소
31	황승철	소방장	제주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36	강재일	소방사	제주소방서 삼도파출소
33	임근형	소방교	제주소방서 연동파출소	36	박승준	소방사	제주소방서 진압대
33	전홍균	소방교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36	양대훈	소방사	제주소방서 삼도파출소
34	고석건	소방교	제주소방서 오라파출소	37	문영진	소방사	제주소방서 방호과
34	배윤오	소방사	제주소방서 방호과	38	김현중	소방교	제주소방서 기획홍보팀
35	고민석	소방교	제주소방서 이도파출소	38	홍용의	소방사	제주소방서 구좌파출소
35	고정훈	소방교	제주소방서 삼도파출소	40	반승관	소방사	서귀포소방서 방호과

7. 지방행정 분야를 마무리 하면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오현인들이 지방행정에 미친 영향은 도내 그 어느 고등학교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인물은 민선·관선 도시사를 역임한 신구범(9회) 동문이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오현고 동문들 중 시장 군수를 지낸 인물을 살펴보면, 북제주군수를 지낸 황인서(2회) 동문이 있으며, 서귀포시장과 북제주군수, 도 기획관리실장, 도 내무국장 등을 지낸 송무훈(3회) 동문이 있다. 김인규(4회) 동문이 남·북제주군수와 서귀포시장, 제주도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도의회 사무처장을 두루 거쳤다. 김계홍(7회) 동문이 북제주군수와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김호성(9회) 동문은 도의회 사무처장과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김한욱(12회) 동문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하는데 실무총수를 맡아 이바지 한 바 크며,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행정자치부 제주 4.3사건 지원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92년 지방자치체가 부활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앞으로는 정통관료로서는 지방행정에 영향력이 한계가 있으며, 타 학교 출신들이 성장으로 지방행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도 매우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직 속의 사조직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은 양립한다고 볼 수 있다. 역기능으로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생각지 않는다. 서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없애고, 선·후배끼리 밀어주고 끌어 준다면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굴하고, 또 개발할 수 있어 조직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채널에서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도 그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리더가 여러 동문들이라 하여 다 같이 이끌 수도 없으며 조직을 알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관리라면 동문 외의 다른 유능한 사람을 배척하거나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동문회 운영 프로그램도 지금까지의 야유회나 하는 단순한 친목도모 차원을 떠나 봉사단화 하고 스터디 그룹화 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경쟁을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서 조직의 건강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문회의 활동은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배만이 먼저가 아니라 후배라도 능력이 있으면 키워주고 후배는 또 선배를 공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오현인이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도민의 신뢰를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전통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모교가 있는 지역에서 자치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인물들이 거울이 되어 모교에도 우수한 후배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선거에서 학연, 지연, 혈연이 가장 병폐라는 말을 많이 한다. 물론 병폐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동문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그릇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소한 감정 때문에 선거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어 인재를 키우는데 주저하거나 동참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제 사소한 감정은 접어두고 인재를 만드는 것이 모교의 발전이라는 생각에서 큰 인물을 만드는 데 모든 동문이 나설 때인 것이다. 지방행정에 몸담은 우리 동문은 제주도 전체 공무원이 약 10%에 달하는 421명이나 된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민의 공복으로서 묵묵히 일 할 것이다. 그러나 100 사람이 범인보다도 전체를 이끌 수 있는 큰 인물이 있을 때 그 그림자는 더욱 크게 드리울 수 있다.

황용남(21회, 제주도의회 의정담당)

■ 지방행정에 봉직하는 동문현황

기관별	정원수	동문회원수	비 율	비 고
계	4,219명	421명	10%	
제 주 도	1,411명	167명	12%	
제 주 시	1,018명	119명	12%	
서귀포시	574명	36명	6%	
북제주군	646명	71명	11%	
남제주군	570명	28명	5%	

제2절 국가직 공무원

1. 국세공무원 재직 동문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와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1999년 현재 5국 19과를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국세청이 있으며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99개 세무서가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은 다음과 같다.

회기	성명	소속	회기	성명	소속
15	고대길	중부지방국세청(서기관)	31	현상권	제주세무서 세원관리1과
16	김규찬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32	문현국	제주세무서 세원관리1과
16	문영화	제주세무서 세원관리1과	35	고영남	제주세무서 세원관리1과
16	유동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35	이우철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21	김길진	제주세무서 세원관리2과	35	지현철	제주세무서 세원관리1과
22	강근추	강동세무서 징수과	36	김대훈	제주세무서 조사과
22	고승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37	김태윤	동대문세무서 징세과
24	문상섭	울산세무서 세원관리2과	37	이재호	제주세무서 조사과
25	윤문유	국세청 조사과 조사2과	38	강진성	제주세무서 세원관리1과
26	고창성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39	김인석	제주세무서 세원관리1과
27	이옥배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	39	김완철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
29	장영삼	제주세무서 조사과	43	황성원	제주세무서 조사과
30	강창희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			

2. 관세공무원 재직 동문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 징수와 수출·입등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전국에 31개 세관, 12개 출장소, 7개 감시소, 중앙관세분석소가 있다.

관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오현동문은 주로 제주·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세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김용호(8회) 동문은 제주세관 통관지원과장에서 퇴임하여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통관실장겸 대우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김병현(7회) 동문과 신병근(17회) 동문은 관세사로 활약하고 있다.

회기	성 명	근 무 처	회기	성 명	근 무 처
15	이동수	인천세관	37	양성국	인천공항세관 3검사관실
17	김영진	제주세관	39	김영경	서울세관 이사회물과
22	현창기	인천세관	42	진양민	부산세관 수입1과
23	김성용	제주세관	44	현천길	제주세관
33	강대홍	부산세관 심사국	45	강윤창	부산세관 육상감시과
34	강승남	서울세관 심사국			

3. 체신청 재직 동문

우체국은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편지나 소포 등을 모아 배달하는 정부기관으로 예금·적금·대출·보험 등의 금융상품이외에도 공과금 수납을 취급하고 있으며 우체국을 관할하는 체신청은 서울·부산·충청·전남·전북·경북·강원·제주체신청이 있다.

체신청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회기	성 명	근 무 처	회기	성 명	근 무 처
6	오창보	전 반월공단 우체국장	15	이두범	제주체신청체우회 사무국장
7	김평정	전 제주우체국장	18	강병우	제주우편집중국 업무1과
9	김선홍	전 애월우체국장	22	강수영	제주체신청 금융영업계장
10	나성호	전 제주우체국장	22	최길수	서울우편집중국 업무과장
11	강성후	전 공항우체국장	23	김재운	세화우체국장
11	김유성	하추자우체국장	27	강석신	국제우체국 안전과장
12	김홍윤	전 모슬포우체국장	36	소승호	제주체신청 전파과
14	양영대	전 김녕우체국장	39	장원근	제주체신청 우정사업과

제3절 재경(在京) 동문 행정 활동

1. 제공회(濟公會)

제공회(濟公會)는 서울 등 수도권에 근무하는 제주도 출신 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제주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탄생한 순수한 현직 공무원 친목단체로서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동창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공회의 탄생은 제3공화국 시절인 1966년도이며 초기에 회원 20여명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회원수가 제주도민들의 서울진출과 함께 1,000여명에 이를 정도이다. 회원수가 말해주듯이 서울 제주도민회 다음으로 큰 단체이며 제주도 출신 공무원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마음의 고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물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각 중앙부처 소관별 예산확보 투쟁을 하는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어떤면 기능 면에서 서울에 있는 제주중앙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제주도청을 비롯한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과 매년 1~2회 업무 보고회, 정책간담회, 현안 토론회를 갖는 등 제주도의 정책현안에 대해 폭 넓은 공감대를 나누고 있다

임원단 구성을 보면 회장 1명과 부회장 17명, 감사1명, 간사단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은 진철훈(20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이 맡고 있다. 부회장단에도 많은 동문들이 포진하여 있는데 17명의 부회장들 중 8명이 오현고 출신으로 서원길(9회) 국가보훈처 심사위원, 김한옥(12회) 4·3사건지원단장, 허장호(14회) 국회도서관 총무과장, 송동근(16회) 문화관광부 부이사관, 김종언(17회) 서울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용찬(18회) 건교부 도시건축심의관, 김영철(19회)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홍재형(21회)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강승화(23회) 행정자치부 서기관이 제공회의 간사장을 맡아 제공회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봉사하고 있다

특히 진철훈 동문이 제공회장에 취임하면서 젊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회원의 결속을 위한 조직 정비와 함께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봉사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제주발전특위와 인재육성특위를 구성하여 경험 많은 제주출신 공무원선배를 위촉하고 각 부처의 젊은 인재들을 부회장단으로 대폭 영입시켜 부회장단을 17명으로 확대개편 했으며 행정고시출신 20~30대 여성 공무원 3명을 간사단에 합류시켜 신구의 조화를 바탕으로 보다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공회 조직 활성화에 힘입어 2001년 9월 8일에는 제공회 역사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지역의 공사분야 각처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들을 합동으로 초빙하여 탐라영재관을 방문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선·후배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경지역의 제주출신 대학생들의 진

로상담을 해줌으로서 타향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주출신 학생들에게 제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선·후배간의 따뜻한 우정을 나누기도 하였다.

제공회는 회원간의 결속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한편 제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 고향후배들의 공직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2. 현공회(賢公會)

현공회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오현고 동문으로서 20회기이후 졸업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이며 1989년 2월 당시 27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13년이 경과한 2002년 5월 현재 회원수가 70여명에 이르고 있다

현공회에는 양영식(7회) 전 통일부차관, 현경대(8회) 국회의원, 강태선(16회) 동진레저대표, 김영철(19회) 서울고검부장검사가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2명, 총무로 구성되어 회장은 진철훈(20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이 맡고 있고 부회장은 홍재형(21회) 통일부 인도지원국장 겸 강승화(23회) 행정자치부 서기관이 봉사하고 있으며 윤문유(25회) 반포세무서 조사반장이 총무를 맡아 현공회의 살림을 맡고 있다.

현공회는 오현고 동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속에 든든한 회원간의 결속을 바탕으로 어느 공무원 친목단체보다 역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고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재경 오현고 총동창회의 기간조직으로서 역할 수행에 앞장서고 있다.

3. 오현동문 활동상황

- 강보성(2회) : 안덕면 화순리 출신으로 단국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및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 남주고등학교 교장 및 이사장, 11·13대 국회의원 및 농림수산부장관을 역임.
- 조창현(2회) : 전남 나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메리카대 석사학위와 조지와 싱턴대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 조지와싱턴대·캠프록주립대 교수, 한양대부총장, 경실련공동대표, 정보혁신추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인사위원장(장관급)으로 재직중.
- 고명윤(2회) : 표선면 토산리 출신으로 195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제주신문기자로 출발하여(1964년) 국회 운영위원회 심의관(1985), 국회 민주법률개폐특위 심의관, 1996년까지 국회의원사무처 법제예산실 실장(관리관)으로 재직했으며, 국회의장 표창과 홍조근정훈장(1994) 수상. 저서로는 「법률안 심사사례집(1991)」과 「법제실무의 기본개념」.

- 안봉수(3회) : 초천읍 함덕리 출신으로 한국 외국어대학 영어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과 수료 후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 지하철건설 본부 서무계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시장 비서관을 지내고 현재 한라일보사 서울 지사장으로 재직중.
- 좌병일(3회) : 애월읍 금성리 출신으로 인하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1963년부터 총리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총리실비서관과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 현 재경 제주도 출신 공무원 친목회 (제공회) 창설회원 이었고, 1970년 홍조근정 훈장을 수상.
- 좌희승(3회) : 애월읍 금성리 출신으로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1962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72년 (주)태라니시상사를 설립하여 재경 총동창회장과 재경 제주도민회 부회장 등 역임.
- 김세택(5회) : 한림읍 수원리 출신으로 1962년 서울대 법대 행정과 졸업.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1963년부터 외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외무부 법무담당관, 주 싱가포르대사, 외무부 본부대사,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 외무부 장관표창 수상.
- 고인래(5회) :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제주대에 진학한 후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조지워싱턴 조지타운대 대학원을 졸업. 1964년 노동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미국 워싱턴·독일·일본·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참사관을 지냈으며 광주 노동청장, 본부 협력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노동청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 1978년 녹조근정 훈장을 수상. 국제노사관계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
- 김길창(6회) : 애월읍 하귀리 출신으로 한양대 기계공학과 졸업. 철도청 공업연구관 역임.
- 김대웅(6회) : 서귀포시 하효동 출신으로 경상대 수의과 졸업. 국립동물검역소 김포공항 동물검역소검역관을 역임.
- 김창남(6회) : 한경면 저지리 출신으로 국민대 법학과 졸업. 제주우정연구소 소장 역임
- 김택조(6회) : 한림읍 한림리 출신으로 제주대 농학과 졸업. 제주세관,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제주지소 검역과장, 국립식물검역소 공항출장소 소장을 역임.
- 부태환(6회) : 구좌읍 상도리 출신으로 고려대 정외과 졸업. 국회사무처, 경제기획원, 상공부를 거쳐 동력자원부 감사관과 특허청의 정보자료국장·심판소장·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후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과 대한송유관공사 사장 등을 역임.
- 박재만(7회) : 제주시 도두동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국가안전기획부 기획판단국 부국장, 제주지부장, 전략연구소장,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소장·수석연구위원을 역임. 보국포장과 보국훈장 천수장 수상,
- 양영식(7회) : 제주시 건입동 출신으로 고려대 정경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972년 국토통일원정책기획실 보좌관으로 공직생활

을 시작하여 통일연구원장과 통일부차관을 역임. 재경제주도출신공무원친목회(제공회)회장과 재경제주도민회부회장을 겸임하였고 현재 제주국제협의회장직을 수행하며 고려대 출강 중. 1983년 우수공무원으로 근정포장을 수상. 저서로는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과 정책노선전망」양영식 칼럼집 「제주사랑 나라사랑 민족사랑」등 다수.

- **홍판기(7회)** : 한림읍 한림리 출신으로 서울대 농공학과 졸업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과 석사학위를 취득 후 충북대 대학원에서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이수. 국가기술고시 토목부문에 합격하여 건설부 수자원국 계장, 산업입지국 계장, 원주지방관리청 하천국장, 일본주재 한국대사관 건설관, 건설교통부 기술연구소장 등을 역임.
- **현경대(8회)** : 제주시 노형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동대학 사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카자흐스탄 탈튀쿠르간 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취득.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검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11·12·14·15대 국회의원 및 현재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 홍조근정훈장(1980) 청조근정훈장(1992) 수상. 저서로는 「노동법」 「민법총칙」 「근로기준법」 「신헌법」
- **변정일(8회)** : 대정읍 신도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및 건국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0대 14대 1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 사법대학원 수석졸업으로 대법원장상(1967년), 황조근정훈장(1994)수상. 자유, 질서, 그리고 정의(역서), 미국 헌법이 아시아 각국 입헌주의에 미친 영향(논문)등 다수 저술
- **서원길(9회)** :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1961년 오현고 졸업하였으며, 1969 제주보훈지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국가보훈처 감사실(1975)에서 근무하고 의료보호과장, 제주보훈지청장, 총무과장, 보훈관리국장을 역임한 후 현재 국가보훈처 심사위원(이사관)으로 재직 중, 국가보훈처장 표창 4회와 국무총리표창 수상.
- **이성언(9회)** : 한림읍 한림리 출신으로 정부 청사관리사무소 시설팀장, 행정자치부 시설 부이사관 등을 역임.
- **권승균(9회)** : 서귀포 하효리 출신으로 한양대학교를 졸업.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시설방재부 부장을 역임한 후 현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소장(시설서기관)으로 재직중임. 근정포장수상.
- **송광국(10회)** : 남원읍 신예리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71년 행정고시 합격하여 포항·대전·구미·창원·제주 세관장 등을 역임.
- **양기순(11회)** : 구좌읍 김녕리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졸업. 1970년 제주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기획관리실, 산업과, 내무국 지방과,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1987년부터

농림수산부에 근무하며 농촌용수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농산물유통국 과수화예과 서기관으로 재직 중. 문교부장관표창(1980)과 대통령 표창(1993)을 수상.

- 고순택(12) : 제주시 삼도동 출신으로 고려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ROTC 제7기생으로 육군중위 제대 후 국정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국정원 이사관으로 재직 중. 1989년 대통령표창 수상.
- 남석훈(13회) : 한경면 판포리 출신으로 건국대 사료학과를 졸업한 후 복제주군청 근무, 국회 사무처 총무·섭외·농수산위원회 경리계장, 전산관리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연수국 교무과장(부이사관)으로 재직 중.
- 허장호(14회) : 구좌읍 한동리 출신으로 동아대 법학사 및 경희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 취득. 해병대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성균관대부설 한국사서교육원 정사과정 수료후 미국 의회도서관 연수 및 국회 의회법령자료과장 역임, 현재 국회도서관 총무과장(서기관)재직 중. 국회도서관장표창 국회의장표창 및 근정포장(1999) 수상.
- 고대길(15회) :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세청자료관리관실, 법무심사국, 익산세무서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장(서기관)으로 재직 중. 장관표창 3회 국세청장표창 2회 수상.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관한 연구(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논문 발표.
- 김규하(15회) : 애월읍 애월리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졸업 및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1969년 노동부 제주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노동부 직업훈련과 과장, 경인지방청 주안고용안전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비서관으로 재직 중. 해외근로자 보호유공표창, 정부 우수공무원 국무총리표창(81), 근정포장(1991)수상.
- 송동근(16회) : 제주시 삼양동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였으며 동 사관학교 졸업 후 자유중국 국립중흥대학 정책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 취득. 공군 대위 예편 후 체육청소년부 훈련과장, 문화체육부 체육교류과장, 문화관광부 국제관광과장과 관광정책과장, 국립민속박물관 부이사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립박물관 추진단장으로 재직 중. 재경 제주도 출신 공무원 친목회(제공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임. 근정포장(1990)과 체육훈장 백마장(1992) 수상.
- 문춘호(16회) : 애월읍 어도리 출신으로 경북산업대학교 토목공학석사학위 취득. 제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공사과장, 건설교통부 도로구조물과에서 근무하고 현재 건설안전과 시설서기관으로 재직중. 제주종합개발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제주도내 4개국도 확장공사설계 및 집행, 전국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집행하였음. 국무총리표창(1999)수상.
- 양종길(17회) : 제주시 화북동 출신으로 법무부 제주출입관리사무소 관리·심사과장, 법무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조사과장을 거쳐 현재 베트남 호치민시 총영사관의 법무담당 영사로 재직중이다.

- 강봉훈(17회) : 조천읍 신촌리 출신으로 현재 정보통신부 정책연구원으로 재직 중. 정보통신 부장관 표창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표창 수상
- 김종언(17회) : 제주시 건입동 출신으로 제주대 행정학과 졸업. 1982.8 법원 공무원(사무관) 임용 후 1993 서기관 승진, 1999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현재 동부지원 사무국장 재직중. 법원 행정처장 표창, 대통령표창수상(1992).
- 이성철(17회) : 제주시 일도동 출신으로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 산업경영대학 원 석사학위와 배재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 상공부 기계공업국에서 근무하다 1997년 3월 특허청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공업서기관으로 재직 중.
- 현길원(17회) : 성산읍 온평리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으며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경상남도 건설도시국장을 거쳐 현재 김해시 부시장(부이사관)으로 재직 중.
- 송용찬(18회) : 한림읍 한림리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제22회 행정고등고시(1978)합격하여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수송정책실 도시관리과장, 토지정책과장, 총무과장, 건설교통부 법무관을 역임하고 현재 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이사관)으로 재직중. 1989년 대통령 표창 수상.
- 고대영(19회) : 제주시 삼도동 출신으로 법원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99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현재 대법원 등기과 과장(서기관)으로 재직중.
- 진철훈(20회) :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건축공학석사 및 단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제14회 기술고등고시(1978)합격 후 서울시 신청사기획단장 및 서울시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 중. 대한민국 ROTC중앙회 14기 회장과 재경 제주도공무원 친목회(제공회)회장 및 재경 제주도민회 수석부회장 그리고 청년한라회(재경 제주도출신 고시합격자 친목회)회장, 재경 현공회(모교출신 공무원 친목회)회장을 맡고 있음. 대통령 근정포장 수상. 학위논문으로 「건축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도시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발표.
- 홍재형(21회) : 애월읍 어도리 출신으로 부산대 행정학과 졸업. 제22회 행정고시합격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통일교육원기획지원부부장, 통일부감사관 통일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정책조정부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통일부 인도지원국 국장(이사관)으로 재직중.
- 양창윤(23회) : 한경면 산양리 출신으로 제주대 경영과 졸업 후 연세대 경영대학원 수료후 승실대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 해병 ROTC 5기 출신으로 해병중위로 예편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비서실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 현경대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경인여자대학교 강사, 숭실대 겸임교수. 저서로는 통일의 기초(1999)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1995).

- 윤승준(23회) : 대정읍 하모리 출신으로 한양대 기계공학 및 환경공학 석사. OECD환경국, OECD대표부 1등 서기관, 지구환경담당관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환경부 정책총괄과 과장(부이사관)으로 재직중. 대통령표창(1992년)수상.
- 김영우(23회) : 한림읍 금릉리 출신으로 제주대 행정학과를 졸업. 1985년부터 국방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89년 10월부터 헌법재판소에 재직중이며 심판사무국, 공보관실, 자료국, 기조실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심판사무1과 서기관으로 재직중. 모범공무원 헌법재판소장 표창수상.
- 강승화(23회) : 한림읍 금릉리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성산 남산 초등학교 교사, 북제주군청, 내무부 지역정책과, 감사과, 세제과에서 근무하고 현재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서기관으로 재직중. 행정자치부 제주 향우회장, 재경현공회(모교출신 공무원 친목회)부회장, 제공회(재경 제주도 출신 공무원 친목회)간사장으로 활동중. 대통령 표창(2001년) 수상. 학위논문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현창부(25회) : 제주시 화북동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진학했으며 성균관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학위 취득(1996). 감사원소속 공무원으로 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대통령 경호실 파견 후 감사원 2국 2과 은행감사담당 감사관(서기관)으로 재직중. 대통령 표창 2회(1995년, 2000년)수상. 학위논문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
- 김희열(25회) : 성산읍 고성리 출신으로 경북대학교를 졸업 제24회 기술고등고시(1989년)에 합격해 200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현재 농림수산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서무과에 재직중.
- 조재현(27회) : 대정읍 신도리 출신으로 한국 외국어대에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1992년 제26회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외교통상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현재 외교통상부 정책총괄과 서기관으로 베트남 외무부에 재직중.
- 문성유(30회) : 제주시 용담동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과, 재정경제부 조정1과, 기획예산처 투자관리과·예산기준과에서 근무하고 현재 교육문화예산과 서기관으로 재직중. 기획예산처 제주향우회장과 제공회 제2청사 간사로 활동중. 근정포장(2002)수상.

4. 그 밖에 사무관으로 재직중인 재경동문 현황

- 김용찬(16회) : 제주시 삼도동 출신으로 조달청 정보관리과 사무관으로 재직 중.
- 한승일(18회) : 조천읍 함덕리 출신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경리계사무관으로 재직중.
- 김상규(19회) : 애월읍 수산리 출신으로 농림부 어업정책과 사무관으로 재직중.
- 고린권(20회) : 제주시 건입동 출신으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으로 현재 예금보험공사 파견근무중
- 윤남호(24회) : 구좌읍 연평 출신으로 환경부 제주환경소장(사무관)으로 재직 중.
- 고종섭(25회) : 남원읍 신흥리 출신으로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과 사무관으로 재직중.
- 고행준(25회) : 추자 대서리 출신으로 통계청 인구조사과 사무관으로 재직중.
- 박목규(25회) : 추자 대서리 출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사무관으로 재직중.
- 권영석(26회) : 제주시 용강동 출신으로 민주평화통일 사무처 사무관으로 재직중.
- 강석신(27회) : 부산 중구 출신으로 국제우체국 안전과장(사무관)으로 재직 중.
- 이승보(28회) : 한경면 청수리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국방예산과 사무관으로 재직 중.
- 고승호(31회) : 안덕면 화순리 출신으로 서울시청 기획예산실 심사평가담당관실 사무관.
- 백승근(31회) : 제주시 봉개동 출신으로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사무관으로 재직중.
- 김성은(31회) : 제주시 화북동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태국 방콕 한국대사관 사무관으로 재직중.
- 양은전(31회) : 제주시 삼도동 출신으로 감사원 항병기위원실 부감사관으로 재직중.
- 최정규(33회) : 조천읍 조천리 출신으로 인천시청 관광진흥과 사무관으로 재직중.
- 김성중(34회) : 제주시 이도동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조직관리과 사무관으로 재직중.
- 양침삼(34회) : 제주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사무관으로 재직중.
- 송대중(36회) : 성산읍 온평리 출신으로 특허청 컴퓨터과 사무관으로 재직중.
- 양주필(36회) : 대정읍 신도리 출신으로 농림부 사무관으로 재직중.
- 김정삼(37회) : 대정읍 일과리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사무관으로 재직중.
- 김정훈(37회) : 한림읍 한림리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고시과 사무관으로 재직중.
- 이진수(37회) : 구좌읍 김녕리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경영관리과 사무관으로 재직중.
- 이상협(38회) : 애월읍 금덕리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 제2담당 사무관으로 재직 중.
- 좌승관(38회) : 대정읍 신도리 출신으로 특허청 사무관으로 재직중.
- 양순필(40회) : 제주시 도남동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 사무관으로 재직중.
- 오성익(41회) : 남원읍 위미리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사무관으로 재직 중.

진철훈(20회, 서울시 도시계획 국장)

제4절 법률

1. 법조인

1) 서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다간 모습을 소박하게 그러나 조금은 또렷하게 남기고 싶어한다. 오십이 되어서야 법조(法曹)에서 활동하는 오현 동문들의 발자국을 본다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感)이 없지 않다. 숙달된 사냥꾼이 발자국을 보고 그것을 남긴 동물의 특성을 알아차리듯 오현의 학맥(學脈)을 타고 난 법조인들의 발자국을 통해 마치 누에에서 명주실을 뽑아 내듯이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로서 공유(共有)하는 식견과 통찰력을 추출하려고 한다. 그러나 등장인물을 일일이 분석하고 득실을 논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오현법조열전(五賢法曹列傳)이 될 수 없다. 사기(史記)의 백미(白眉)는 열전(列傳)이다. 왕과 제후가 아닌 사회 각 계층의 셀 수 없는 다양한 인물들을 독특한 시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선 등장인물들의 자기 소개를 토대로 가감 없이 서술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원칙적으로 매년 오현을 빛낸 동문으로서 2001년까지 기념패를 수상(受賞)한 법조인으로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법원 또는 검찰 이사관으로 수십 년 간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문화 창달에 공이 많은 동문들은 법조인에 준하여 예우하였다.

일반적으로 법조인이라 함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판사·검사·소송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 3역을 일컫는다. 법률 수요의 다양함과 복잡성 때문에 이런 직역 이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기업체의 법률고문, 법률담당이사로 근무하는 자도 있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헌법재판소 등에서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있다. 물론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은 언젠가는 변호사로 복귀하여 개업할 수 있는 자들이므로 법조인임에 틀림없다.

법조인들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에 기초하는 지성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원리, 원칙주의자들이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적당주의를 제일 싫어한다. 기계(機械)같다고 느낄 정도로 꼼꼼한 성정(性情)을 갖고 있다. 뒷사람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기 분야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성실하게 일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조인들은 기능적 지성인이라기보다 비판적 지성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민주화, 지식정보화 등으로 표현되는 지난 50년의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오현 법조인들은 비판적 지성에서 기능적 지성의 역할에 치우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제주 법조계의 인맥

오현 법조인은 제주법조계의 한 축(軸)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돈의 고비 고비마다 그 극복은 자신의 사회적 책임으로 여겨 법과 원칙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여 왔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있어 근대적 사법제도의 시발(始發)은 1895년(高宗 32년) 3월 25일 공포된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에서 연원한다. 이 법에 근거하여 1986년 1월 20일 제주재판소가 설치되었으나 제주부(濟州府)의 관찰사 오경림(吳慶林)이 초기 판사를 겸직하였고 검사의 직무는 참사관이 맡아보았다.

이와 같은 행정권과 사법권의 겸직 현상이 풀린 것은 19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1908년 8월 1일 제주에는 제1심 단독사건을 관할하는 제주구(濟州區) 재판소가 개청되고 검사국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광주지방법판소는 제주구의 제1심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와 제주관내 합의사건을 관할하였고, 이 합의사건에 대한 불복항소는 대구항소원에서 제기하였다.

당시 제주구재판소의 판사로는 1908년 5월 27일자로 多賀谷雄雙(일본인)이 임명되고 1908년 6월 20일자로 崔元淳이 임명됨으로써 제주에는 2명의 단독판사가 있었다.

1910년 韓日合邦이 되자 재판제도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종전의 지방재판소 지부는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재판소의 명칭을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으로 변경하고 단독사건만을 관할하도록 했다.

8·15 광복 후 美軍政은 1945. 10. 11. 자로 지방법원 제주지청을 제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켰다. 당시 일본인 판사 및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이 내려지자 전국의 법원, 검찰은 한때 공백상태가 되었는데 제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주지방법원 초대 법원장에 崔元淳(명월 만호)을 역임한 최달현의 장남 ; 전남 보성 출생, 제주지방법검찰청 초대 검사장에 현오(玄悟) 梁洪基(제주시 화북 출생)가 日政때 전직 판사 출신으로서 변호사 개업을 해오다가 임명되었다. 제주 법조계의 양대 거두인 최원순이나 양홍기 모두 일제치하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여 불우한 동포의 인권옹호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제주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초대 제주도교육감을 역임한 최정숙(崔貞淑)은 최원순의 딸이며, 제주농업고등학교장을 역임한 최광식(崔光植)은 그의 아들이다. 양홍기씨는 1961. 2. 28. 제주도변호사회의 결성에 초석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고 1952년 제주대학이 개교되면서 같은 해 6. 1. 교수로 임명된 인연이 있어서인지 그의 많은 유산은 현오학술문화재단으로 만들어져 그의 아들 만오(晩悟) 양치중 전 교육감이 대를 이어 제주지역의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다.

제주시 이도동 출신 박중훈(朴鍾薰) 변호사도 일제치하인 1921년 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검사·판사를 역임하다가 1939년 11월 제주시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여 인권옹호에 힘쓰신 원로 법조인인데, 양흥기 초대 검사장을 이어 2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다.

美軍政 당시 제주에만 특유한 법조인 선출 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달리 교통이 매우 불편했던 관계로 제주에는 아무도 판사와 검사로 부임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美軍政 당국은 제주지방법원으로 승격 시켜 놓고, 1946. 7. 22. 제주를 도(道)로 승격 시켜 놓기도 했으나 판사와 검사를 충당할 길이 없어서 1946년 말경에 ‘濟州道司法要員試驗’을 시행하여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주도에서 1차로 실무수습을 마친 다음 서울에 가서 다시 2차로 실무수습을 마치게 한 후에 판사와 검사로 임명하였다. 이 당시 이 시험에 25명이 응시하여 그 중 金泰俊(애월읍 출신), 梁乙(남원읍 신례리 출신; 일본 立命館大 법학부 졸업), 金邦順, 金榮吉(한림읍 귀덕리 출신; 일본 立命館大 법학부 졸업, 제주지방법원장 역임), 李在萬 등 5명이 합격하였다. 金泰俊, 金榮吉은 각 판사로 보직을 받았고, 梁乙, 金邦順(4·3사건 당시 사망), 李在萬 등은 제주지방법원 검사국의 각 검사로 보직을 받았다.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다가 1949년 사임하여 제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黃聖秀 변호사(전남 출신으로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 합격)가 제주 4·3사건 과 관련한 변호를 많이 하여 억울한 누명을 쓴 도민들의 인권옹호에 앞장섰다.

1950년 당시 제주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로서는 김무근(金茂根), 박중훈(朴鍾薰), 양흥기(梁洪基), 황성수(黃聖秀), 최원순(崔元淳), 옥동영 등이 있었다. 1952년 3월 김태준(金泰俊) 판사가 법복을 벗어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제주출신 任炳洙(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가 1960년도에 귀향하여 제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였고, 1961년 8월 제주지방법원장을 사임한 金榮鎬가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그 후 金泰琬 변호사(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검사 역임)가 1963년 제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1971년 12월 28일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대표자 김영호 변호사, 구성원 양흥기, 김무근 변호사)가 개설됨으로써 법률서비스에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73년 4월 변정일 동문이 처음으로 제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함으로써 오현 법조인이 제주에서 뿌리를 내리는 단초가 되었다.

3) 법조인의 약전(略傳)

이제 史筆昭世(역사가의 붓이 세상을 환히 드러낸다)의 심정으로 역사와 시대를 살아 온 오현 동문들의 법조사(法曹史)를 다음과 같이 기록함으로써 후학(後學)들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 **황철수(黃哲守, 7회)** : 1941. 3. 24 생. 197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1965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67년 제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 군법무관으로 공직을 시작. 1974년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에 임명되고 변호사 개업할 때까지 육군 사단과 군단본부에서 법무부장을 역임하는 등 약 10년 간 군에서 복무함. 2001년 재경 오현고 동문회장을 맡아서 동문들간의 친목과 화합에 애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경 오현회관의 건립에 숭선수범함.

- **현경대(玄敬大, 8회)** : 1939. 2. 21. 생. 제11, 12, 14, 15,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5선 의원으로서 재주가 낡은 중앙정치의 거물. 1964년 서울법대를 졸업.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대학원을 졸업. 육군법무관(1967~1970)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검사로 발령을 받아 인천지검, 대전지검, 서울지검, 법무부 등에서 근무함. 그 와중에서도 승전대와 명지대에서 형사소송법 강의. 11대 국회(1981~1985)에서 집권 여당인 민정당 원내부총무를 맡아 초선답지 않는 왕성한 의정활동 수행. 제12대 국회(1985~1988)에서 현행 헌법의 개정작업에 참여했으며 민정당 원내 수석부총무로서 맹활약함.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했으나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1990~1991)에 중용되어 통일정책의 초석을 다지는데 평소 갖추고 있는 식견과 통찰력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중앙에서 그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음. 제14대 국회의원(1992~1995)에 당선됨으로써 정치 재기에 성공.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1992~1993), 집권여당인 민자당 원내총무 겸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1995) 등을 역임. 제15대 국회(1996~2000)에서 야당인 한나라당 당무위원, 전당대회회장의 중임을 맡아 중요 당직(黨職)을 골고루 경험하였고,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국회 대한민국과 그리스 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맡아 의원외교에 크게 기여함. 1980년 홍조근정훈장을, 1992년 청조근정훈장을 각 수상. 저술활동도 활발하여 1974년에 노동법, 1984년에 민법총칙, 1986년에 근로기준법, 1988년에 신헌법이란 책을 발간함. 그 이외에도 다수의 통일정책에 대한 논문이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 탈튀쿠르간 대학교(카자흐스탄 공화국 소재)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함. 동방아그로, 대한항공,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법률고문. 4.3사건의 최대 피해자로서 어린 시절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임.

- **오윤덕(吳允德, 8회)** : 1942.1.15 생. 현재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과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법률 강의를 맡고 있음. 1965년 서울법대를 졸업. 동기들보다 다소 늦게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함. 사법연수원(3기)을 수료. 197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부임. 1983년 서울고등법원판사로 승진하고, 1987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1994년 변호사 개업. 그가 쓴 사법시험 합격기가 시험 준비생들에게 널리 많이

입힐 정도로 달필(達筆). 서울구치소 면회대기실의 벽에 '적어두시오' 라는 제목으로 악덕 변호사 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로는 오윤덕 변호사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성실 변호로 정평이 나옴.

- 변정일(邊精一, 8회) : 1942. 5. 14 생. 1978. 12. 12. 제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최초로 국회의원 오현고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 1964년 서울법대 졸업. 그 이듬해에 23세의 나이로 동기인 현경대와 함께 제5회 사법시험 합격. 1967년 사법대학원을 수석 졸업의 영예와 대법원장상(賞)을 수상. 군법무관으로 3년 근무한 후 1970년 10월 동기생 중에 유일하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발령을 받아 오현고 출신 첫 판사가 됨. 1973년 4월 제주에서 변호사 개업. 오현고 각 회기별 동창회의 이름에 현자(賢字) 돌림이 붙게 된 것은 변정일이 1974년 오현고 8회 동창회를 창립하여 그 고유 이름을 현단(賢團)으로 명명(命名)한데 있음. 이를 계기로 기별 동창회 설립이 활성화됨. 80년대 초반 정치인으로서 불운(不運)과 역경(逆境)을 극복하고 1982년 제주도야구협회장에 취임하여 1986년까지 야구의 불모지인 제주에 제주제일고, 서귀중 등에 야구부를 창단하는 디딤돌이 되었고 프로야구경기를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체육발전에 큰 기여를 함. 1998. 9. 헌법재판소 초대 사무처장에 취임하여 3년 3개월 남짓 재직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기틀을 다지는 데 앞장섬. 중앙에서 그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게 되자 1992. 3.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는 영예를 안고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함. 통일국민당에 입당하여 당(黨) 대변인을 맡아 범조인 대변인 시대를 열기도 하였음. 평소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1995년에 국회 2002년 월드컵경기유치위원을, 1997년에 월드컵 축구경기 제주유치위원장을 맡아 서귀포에 월드컵을 유치하고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국비 30% 지원을 받아 냈음. 정치인으로서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욕구를 승화시켜 1995. 8. 건국대에서 법학박사(헌법전공) 학위를 취득함.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망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의 중임을 맡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1999년 12월 4·3특별법 제정과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2000년 4월 실시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 현재 법무법인 정현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한빛은행, 국민은행 등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음. 저서로는 미국헌법과 아시아 입헌주의(1995년)

- 김원치(金源治, 9회) : 1943. 9. 5 생. 오현 동문 중에서 유일한 현직 검사장. 1966년 서울법대 졸업. 교직에 있으면서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함.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75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을 받았음. 초임 검사시절에는 주로 호남지방에서 근무하다가 1980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부임하면서 공안(公安) 담당검사로 격동의 80년대를

보냄. 이 시대는 민주와 자주,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의 영위책을 둘러싼 거대한 투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학생운동 · 노동운동 · 재야운동 · 통일운동 · 반미논쟁 등을 둘러싼 실정법 위반 문제가公安검사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었음. 1988년 고등검찰관인 대검찰청 공안과장으로 영전을 하였으나 격변의 80년대의 역사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생생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훗날 재직 중의 경험을 저서로 남김. 6공화국의 등장 이후인 1989년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약 2년 간 후진 양성에 힘쓰기도 했으나 1991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검사로 보임을 받아 공안 분야에서 떠남. 1993년 건강상의 이유로 한직(閑職)인 서울고검검사로 있다가 1994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1995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으로 부임하여 일선 지휘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았음. 검사장 승진 코스인 서울지검 제1차장검사(1996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장(1997년)을 역임하던 중 대망의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1998년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함. 1999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옮긴 후 야전사령관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보임을 받아 부정부패와 사회부조리 척결에 리더십을 발휘함. 2000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음. 검사시절에 서독(西獨) 막스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에서 1년 간 연수교육을 받았고, 독서광인 그는 검찰제도에 관한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좌파(新左派)와 테러리즘', '독일 적군파' 라는 명저(名著)를 저술. 2001년에 인터넷 법률사이트 '뉴스로시컴(newslawsee.com)'에 '검찰간부에게 꼭 필요한 14가지'란 제목으로 글을 연재하여 검사덕목 13개를 소개하는 등 후배 검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남김.

- 임창원(任昌元, 12회) : 1945. 3. 13 생. 1968년 2월 서울법대를 졸업. 같은 해 3월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1968. 3.~1970. 2.)을 졸업. 육군법무관으로 군복무. 1973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발령 받음으로써 변정일 선배와 비슷한 학력과 법관의 길을 걸음.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1975년), 제주지방법원 판사(1977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197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198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1983년),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1985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1987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수석 부장판사(1989년)로 각 근무한 경력이 말해주듯 서울과 제주를 오고 가며 법관 생활을 하였음. 17년 간의 법관 생활에서 다져진 과묵하고 온화한 인품은 1990년 12월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고, 1998년 9월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연임하며 제주지방변호사회를 이끌고 있음. 현재 제주도, 제주도지방경찰청 등의 고문변호사. 제주대학교병원 이사 등 맡음.

- 강문중(康文鍾, 13회) : 1947. 5. 29 생. 1970년 2월 서울법대를 졸업. 1971년 제13회 사법

시험에 합격. 1973년 제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첫 발령을 받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197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1978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1982년), 대구고등법원 판사(1983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1988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0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2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장(1993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199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1996년)으로 각 근무한 경력이 말해주듯 법관 생활 20년 이상을 부산과 경남에서 보낸 이른바 향토(鄕土) 법관임. 오현고 출신으로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199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하였으며, 인품과 경력, 전문성 등의 관점에서 법원장 승진 서열(序列) 1순위에 올라 있다는 평(評)을 듣고 있음.

- 김승석(金承錫, 15회) : 1949. 8. 17 생. 1977년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칠전팔기 끝에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17기)을 수료한 후 1988. 3. 제주에서 변호사 개업. 개업 초부터 수년간 제주법대에서 형사소송법 강의.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초안을 기초하면서 지역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어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사이에 제주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 위원, 세계화추진제주협의회 지역경제분과위원장 등을 역임. 같은 시기에 제주도치안행정협의회 위원, 제주도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제7,8기), 제주지방자치연구회 회장(1992~1994년), 21세기 제주를 생각하는 모임 회장(1995년) 등을 역임함. 한라불교신문(현, 정토신문) 초대 대표이사 겸 편집인(1995~1997년), KBS 제주방송총국 객원해설위원(1995년, 2001년), KBS 제주방송총국 시청자 위원장(1997년), 제주타임스 논설위원(1999~2002년) 등으로 활동함.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제주지구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100만 내외 도민의 협력을 이끌어 냈고, 199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사) 공동체 의식개혁국민운동 제주도협의회 상임 공동의장으로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1998. 1. 제3대 제주도정부부지사로 취임. 1999년 5월 21세기 제주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준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미래사회연구소를 개설. 연구의 성과물인 '제주비평' (정기간행물 년 2회 발간)이라는 잡지를 발간함. 불교신문발행과 포교에 헌신한 공로로 1994. 5. (사) 불다 제주중앙클럽이 수여하는 붓다대상(불교부문)을, 비행소년 선도와 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2001. 12. 법무부장관상을 각 수상함.

- 김영철(金泳哲, 19회) : 1953. 1. 2 생.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에서 4남1여 중 차남으로 태어나 남원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돛(豚) 거름 내어 보리밭 일구기, 고구마 절간, 무말랭이 만들기, 김매기 등 전형적인 농촌소년기를 보내면서 법조인의 꿈을 키워 왔음. 집안 형편이 어려워 1971년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되자 건국대 법과를 입학하여 1975년 3월 졸업하는 해에

만 22세의 나이로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함. 사법연수원(제7기)을 수료. 1977년 육군법무관 군복무. 198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음.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1983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987년)를 거쳐 1989년 고등검찰관으로 승진하면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에 모교인 건국대 법과에서 강의를 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함. 그 무렵 스페인 마드리드 콤포벨르텐세대학에 1년 간 연수를 마치고 나서 스페인헌법의 발전과정, 스페인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용현황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함. 1991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장검사로 보직을 받아 친정인 검찰로 복귀함. 같은 해에 서울대 법대 사법발전연구과정을 수료함.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장(1992년), 대구지방검찰청 형사부장(1993년), 법무부 보호과장(1993년)역임. 1995년 서울서부지청 형사부장, 1997년 서울지방검찰청 송무부장, 조사부장 등을 역임하고 1998년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함. 1999년 수원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를 영전한 후 현재는 한직(閑職)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있음. 1996년 '프라이버시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로 건국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함. 2001년 서울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 수료. 2000년 5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함.

- 임흥순(任興淳, 20회) : 1953. 7. 10 생. 1977년 2월 서울법대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하여 3학기를 수료한 후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제14기) 수료. 1985. 3. 제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함. 개업 초에 제주대학교 법학과 강사로서 소송법을 가르침. 1995년 2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 변호사로서 각종 공익활동에 참여하여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위원, 제주도인사위원회 위원, 북제주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함.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아 한라 소년합창단 단장과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KBS 제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장을 맡아 지역방송문화의 발전에 기여. 오현 20회기(20회~29회) 회장을 오랫동안 맡으면서 20회기 동문의 화합과 오현 총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 제주도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찰서, 한라일보사, 한국전력 제주지사, 제주컨트리클럽,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등의 고문변호사로서 사회 각 분야에 폭넓게 활동하여 법률문화향상에 이바지함. 현재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 강상수(姜相守, 22회) : 1955. 9. 28 생. 1983년 2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진흥기 변호사, 강창재 변호사와 동기동창인 그는 동기들보다 조금 늦게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함. 1989년 2월 사법연수원(제18기)을 수료한 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으나, 1990년 초 제주로 옮겨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각종 공익활동에 참여하여 제

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전국버스공제조합 제주 도지부와 국정원(전 안기부) 제주지부 등의 고문번호사로 활동함. 과묵한 성품에다가 겸손하여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함.

- 강창재(姜昌材, 22회) : 1955. 5. 1 생. 1974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에 입학. 1979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는 이듬해에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3년 간 복무하고 1985년 9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음.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2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고등검찰관), 1995년 3월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9년 6개월 간의 검사생활을 마감함. 1995년 3월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가 1997년 11월 제주로 이전 개업함. 변호사로서의 업무방침을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변호사', 또는 '특히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 로 정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제주경찰청에서 상임집행위원을 맡아 주민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4·3 도민연대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또한 한라일보에 헌법상의 기본권을 주제로 칼럼을 연재하기도 하는 것이 모두 그 사례이다.

- 진흥기(秦鴻琪, 22회) : 1955. 3. 21 생. 1983년 2월 서울법대를 졸업. 198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함. 동 대학원 재학 중인 1984년에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7년 2월 사법연수원(제16기)을 수료하자마자 변호사 개업을 하여 현재까지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함.

- 강문원(姜汶元, 26회) : 1959. 4. 19 생. 2학년 재학 중에 전도 고등학교 학력(국어·영어·수학)경시대회에서 종합 1등을 하여 오현의 명예를 드높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198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동 법과대학원에서 1985년 석사학위를 취득함. 서울대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조세법을 전공, 수료하였으며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자기주식에 관한 연구가 있음.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21기)을 수료. 199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로 첫 발령. 춘천지방법원 본원 판사(1995~1997), 제주지방법원 판사(1998~1999)를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경매 등 다양한 재판실무경험을 쌓았고 여기에 박사과정까지 수료할 동안에 축적한 풍부한 법학 지식을 바탕으로 고향인 제주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생각으로 2000년 2월 변호사 개업.

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고도 정열적인 변론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상공회의소 법률고문 변호사, 제주교역

법률고문 변호사, 수협중앙회 제주도지회 법률고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함.

- 허세진(許世珍, 26회) : 1959. 12. 9 생. 1982년 한양대학교를 졸업. 이어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여 1986년 석사학위를 취득함. 2001년 동 대학원 박사과정(법학)을 수료. 대학원에 진학 중인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21기)을 수료하고 1992. 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음. 1994. 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96. 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1998. 6.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를 수료하기 위해 프랑스 유학. 1999. 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부임. 2001. 2.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중임.

- 강석보(康奭輔, 27회) : 1960. 6. 30 생. 재학 중에 수재로 이름이 났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4년 간 특별장학생으로 대우받기로 하여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함. 대학을 졸업하는 해인 1984년 24세의 나이로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함. 1985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함과 동시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1987년 2월 대학원과 사법연수원(16기)을 동시에 수료함. 1987년 5월 육군 법무관. 1990. 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음. 1992. 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1993. 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서 1995. 3. 인천에서 변호사를 개업. 그러나 뜻한 바 있어서 1998. 2. 제주로 옮겨 변호사 활동하고 있음. 인천 부평 갑구 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LG화재보험 제주지점 법률고문, 전국화물공제조합 제주지부 법률고문, 남제주군 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함.

- 전호중(全豪鍾, 28회) : 1962. 2. 8 생.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 키워야 한다”는 말과 달리 제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주대학교 법과 오현 동문으로서의 사법시험에 첫 합격하는 영예를 얻음. 1985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입학. 동 대학원을 졸업.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6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판사, 1998년 수원지방법원판사를 거쳐서 현재 제주지방법원판사로 재직 중임.

- 장운성(張雲盛, 29회) : 1962. 5. 27 생. 198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입학. 서울법대 3학년 재학 중인 만 21세의 나이로 1983년 10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영예를 얻음. 1985년 2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1987년 2월 사법연수원(16기)을 수료.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 1990. 3.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 변호사로 첫 출발. 1991. 7. 고향인 제주에서 변호사를 개업.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 변호사로 복귀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임. 영국의 법률

구조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1997. 9. 약 6개월 간 영국에 유학을 했고, 2001. 9. 법률구조 유공자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음. 논문으로는 소장의 유형과 정리, 특조법 등기의 추정력, 영국의 법률구조제도, 영국 법률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등 다수 있음.

- 박석훈(朴錫勳, 29회) : 1962. 9. 1.(음력) 생. 1981년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1988년 동대학교 졸업. 졸업 후 약 2년 간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던 중 청운의 큰 뜻을 품고 사직하여 사법시험 준비에 정진하여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함.

1999년 2월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 현재 서울 YMCA 자문변호사, 재경오현총동창회 기획이사 겸 장학위원으로 활동 중임. 가훈은 正思 · 正言 · 正行이고, 생활신조는 萬古狂風山不動 億千注水海無量.

- 변창범(邊昶範, 29회) : 1963. 1. 29 생. 남제주군 대정읍 출생,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1963. 1. 29 생. 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 2월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 1996년 3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음. 1998년 전주 지방검찰청 검사, 1999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현재 검사로 재직.

- 강영철(姜英喆, 29회) : 1964. 1. 16 생. 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1년 2월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한 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

- 고창일(高彰一, 30회) : 1963. 3. 6 생. 졸업 후에 군 복무를 마치고 뒤늦게 1988년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1992년 대학을 졸업하고 향촌에서 감귤농사를 지으며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차에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대기만성형. 현재 사법연수원(2년)에서 연수중임.

- 강선명(姜宣明, 30회) : 1963. 12. 20 생. 1983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군 복무 후인 1990년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에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함. 1993. 2. 사법연수원(22기)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초임 판사들이 선망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첫 발령을 받음. 1995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판사, 1997년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거쳐서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발령 받아 현재 우리나라 부실기업의 법정관리인 격인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전담 판사로 근무 중에 있음. 그래서 실무경험과 법률이론을 정리한 '회사정리실무' 라는 책을 발간함.

- 현덕규(玄德奎, 31회) : 1964. 4. 20 생. 198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1987년 동 대학

졸업.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 취득. 석사장교를 군 복무를 하면서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 2.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하고 1993년 변호사 개업. 현재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임. 논문으로는 '한국헌법상 토지재산권에 관한 연구' 등이 있음.

- 강창조(姜昌朝, 31회) : 1964. 11. 7 생. 1983년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1987년 졸업하는 해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강창재 동문의 동생이니 형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첫 기록을 남겼음. 1990. 2. 사법연수원(19기) 수료.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여 1991년 동 대학원을 졸업함. 1993. 3. 청주지방법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았고, 1994년 광주지방법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1996년 수원지방법검찰청 검사, 1998년 서울지방법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를 거쳐서 1999년 프랑스 유학함. 1년 간의 해외연수를 끝내고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복귀함. 논문으로는 '사기죄와 재산상의 손해' 등이 있음.

- 고범석(高範碩, 31회) : 1964. 11. 28 생. 198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1987년 동 대학 졸업.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함과 아울러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함. 1992년 사법연수원(21기) 수료.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 1995년 변호사 개업. 그러나 뜻한 바 있어서 1996년 검사 임용을 위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았음.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0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를 거쳐서 현재 프랑스 유학 중임. 논문으로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연구' 등이 있음.

- 강경래(姜旻來, 32회) : 1965. 4. 14 생.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1988년 동 대학 졸업. 군 복무를 마치고 동기들보다 다소 늦게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함. 2001년 사법연수원(30기) 수료. 2001. 3.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아 그곳에서 재직중임.

- 변민선(邊珉宣, 32회) : 1965. 5. 11 생. 1990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9년 사법연수원(28기) 수료. 1999. 3.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첫 발령을 받아 현재 판사로 재직중임.

- 좌세준(左世俊, 32회) : 1965. 8. 22 생. 1989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여 1991년 법학석사(형법 전공) 학위를 취득함.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12월 현재 사법연수원(32기)에서 연수중임.

- 고 훈(高勳, 32회) : 1965. 8. 28 생. 1990년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경제학과 졸업.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 2. 사법연수원(27기) 수료.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

- 박형섭(朴亨攝, 33회) : 1966. 6. 12 생.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12월 현재 사법연수원(32기)에서 연수중임.

- 고용기(高瑑基, 33회) : 1966. 9. 7 생. 1990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졸업. 동대학원 통계학과에 진학하여 1992년 석사학위 취득함.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12월 현재 사법연수원(31기)에서 연수중임.

- 허정수(許丁穗, 33회) : 1966. 11. 26 생.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중퇴. 고향에서 독학으로 사법시험 준비를 하여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함. 2001년 사법연수원(30기)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아 현재 검사로 근무중임.

- 송영근(宋英坤, 33회) : 1966. 12. 18 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과(민법 전공) 수료.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사법연수원(30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 평소 학문적 관심이 많아 2000년에 민법사례연습, 민법의 쟁점(I, II) 등의 저서를 펴냄.

- 장은용(張銀容, 33회) : 1967. 1. 12 생. 1986년 한양대학교 법학과 입학. 1990년 동 대학 졸업.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3월 사법연수원(31기)에 입소하여 현재 연수중임. 제주시에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장은식(제주일고 30회)과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장은철(오현 37회)은 그 동생임.

- 조영호(曹永昊, 34회) : 1966. 2 생.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군 복무를 마친 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2월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예비판사로 첫 발령 받아 현재 판사로 근무중임.

- 김영석(金永錫, 34회) : 1967. 6. 28 생. 경찰대학 졸업.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가를 반납하고 꾸준히 사법시험을 준비한 끝에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영예를 얻음. 현

재 사법연수원(32기)에서 연수중임.

- 김진령(金眞鈴, 34회) : 1967. 8. 9 생. 1993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2월 사법연수원(30기) 수료. 인천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첫 발령을 받아 판사로 근무 중임.

- 양계성(梁桂誠, 34회) : 1968. 1. 16 생. 199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1년 23세의 나이로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 해군법무관으로 복무. 제대 후 임관하지 않고 1997년 법무법인 세종에 들어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임.

- 양요안(梁要安, 34회) : 1968. 1. 7 생. 1990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2월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았고, 2000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를 거쳐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로 재직 중임.

- 김영수(金英洙, 34회) : 1968. 1. 18 생. 1990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8년 제1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2001년 2월 사법연수원에서 군법무관 교육 수료. 현재 해군 교육사령부 법무실장(군법무관)으로 근무 중임.

- 강정우(姜廷雨, 35회) : 1969. 1. 5 생, 1991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1993년 제10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군법무관 교육을 수료 후 제주방어사령부 검찰부장, 한미 연합사령부 해양법장교, 해군본부 법무감실 계획장교, 해군 제2함대사령부 법무실장을 역임. 현재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법무실장으로 근무중임. 미국 워싱턴 법대에 유학하여 2001년 법학석사학위를 취득.

- 박성남(朴星南, 35회) : 1968. 2. 15 생. 1987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입학. 1991년 2월 동 대학을 졸업. ROTC 제29기로서 소위 임관. 육군본부 정훈감실 등에서 복무를 하다가 1997. 6. 예비역 대위로 전역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2000년 12월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영예를 얻음. 2001년 3월 사법연수원(32기)에 입소하여 현재 연수중임.

- 강민성(姜旻成, 35회) : 1968. 7. 2 생. 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9

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3월 사법연수원(31기)에 입소하여 연수중임.

- **고영일(高榮一, 36회)** : 1969. 4. 1 생. 한국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고자 성균관대 법학과 3학년에 학사편입. 동 대학 졸업. 2000년 12월 제42회 사법시험 합격함. 2001년 3월 사법연수원(32기)에 입소하여 현재 연수중임.

- **양철웅(梁哲雄, 37회)** : 1970. 7. 20 생. 1995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2월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하고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 2001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함.

- **현인혁(玄仁赫, 37회)** : 1970. 9. 26 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민법전공) 수료. 2000년 12월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3월 사법연수원(32기)에 입소하여 현재 연수중임.

- **고제성(高齊成, 37회)** : 1970. 11. 3 생. 1993년 경찰대학 졸업. 경찰공무원에서 현직에 근무하면서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 1995년 동 대학원 수료.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2월 사법연수원(30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첫 발령을 받아 현재 판사로 근무중임.

- **문성관(文盛冠, 37회)** : 1970. 11. 21 생. 1997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2월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하고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첫 발령을 받아 현재 판사로 근무 중임.

- **김경수(金耿帥, 39회)** : 1972. 11. 24 생. 1995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동 대학에서 조교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1999. 2.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여 법학석사학위(* 학위논문 :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연구) 취득함.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2월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한 후 해군 법무관으로 입대하여 현재 해병대 제2사단 법무실 검찰부장으로 복무 중임.

- **양석조(梁碩祚, 40회)** : 1973. 3. 22 생. 그 부친 양창현은 같은 오현 동문(12회)임. 부친이 아시아나항공사 일본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1986년 일본 나고야시 소재 초등학교를 졸업

하고, 1989년 서울 양정중학교를 졸업(차석 졸업)하는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음. 양정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부친의 뜻에 따라 1학년 때 오현고등학교에 전학하여 1992년 졸업할 때 인문계 수석을 차지하는 영예를 얻음. 1997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2월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한 후 현재 대검찰청 기획과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중임. 2001년 일본 문무성이 주관한 일본어능력시험에 합격(1급)한 일본 통임.

- 양성필(梁盛弼, 41회) : 1974. 8. 14 생. 1997년 2월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0년 12월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3월 사법연수원(32기)에 입소하여 현재 1년 차 연수중임.

- 장 건(張 健, 41회) : 1974. 7. 28 생. 199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그 해에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2월 사법연수원(30기) 수료. 현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로 재직중임.

- 김경준(金暲駿, 42회) : 1976. 1. 1 생. 199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1989년 41회 사법시험 합격함. 2000년 3월 사법연수원(31기)에 입소하여 연수중임.

이 외에 김명철(32회), 김명수(37회), 부동식(39회), 정우근(41회), 문경준(43회) 동문이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사법연수원(33기)에 입소해 연수를 받고있음.

4) 결론

끝으로 이 법조인 약전에 수록될 동문들에게 2차에 걸쳐 자기 소개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청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문들로부터 회신이 없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을 밝힌다. 그래서 일부 동문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안타깝다. 이 법조열전에 수록된 오현 동문 55명중에서 출신대학별로 분류하여 보았더니 서울대 26명 (47%), 고려대 6명, 연세대 6명, 한양대 5명, 경희대 4명, 건국대 3명, 성균관대 2명 경찰대 2명, 제주대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승석(15회, 변호사)

2. 법무사

1) 제주 지방 법무사회 연혁

1942년 제주사법서사조합을 설립하였으나 1945년 8월 15일 해체되었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 등기사업 추진관계로 제주사법서사회를 조직하였다. 1963년 4월 25일 공포된 사법서사법에 의거하여 1963년 5월 25일 창립총회를 열어 제1대회장에 임태희(任泰禧)씨를 선임하였으며, 1989년 12월 19일 국회에서 사법서사법이 법무사법으로 개정되어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 4200호로 공포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제주지방법무사회로 개칭하고 회칙을 제정하여 현재 임영기(任永祺, 5회)동문이 회장으로 연임중이다.

2) 법무사 개업 동문

- 강성룡(姜成龍, 1회) : 제주시 연평동 출신으로 건국대 법학과 졸업. 고려경영대학원 수료. 국방대학원 수료. 외국어대학 외국어연수원 수료. 서울법대 법학연구소 이수. 가톨릭교리신학원 졸업. 춘천지법 민형과장. 법원행정처 판례편찬담당관 및 재판자료과장. 서울고법특별과장. 서울민사지법과장.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광주지법사무국장. 서울형사지법 사무국장. 법원 이사관으로 정년 퇴임 후, 현재 서울에서 법무사 강성룡사무소를 개업. 서울 가정법원조정위원 등 역임하고 기여한 공으로 녹조근정훈장과 홍조근정훈장 수상.

- 김영주(金榮柱, 2회) : 제주시 일도동 출신으로 동국대 정치학과 및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검찰청 서기(현 검찰주사)로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과장.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 사건과장.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무과장. 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기여한 공으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 총동창회 제2대 부회장, 이사, 자문위원 등 동창회 발전에 기여하고 검찰동우회 제주지부장으로 검찰동우들의 화합과 발전에 진력하고 현재 제주시에서 재일법무사 합동사무소를 개업.

- 양진호(梁眞豪, 3회) : 북제주군 한림 출신으로 제주대 법학과졸업. 제주지방법원 민형과장, 등기과장, 총무과장. 전주지방법원 민사·형사과장.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사무국장 등 역임하고 기여한 공으로 근정포장 수상. 명예퇴직 후 제주시에서 법무사 양진호사무소 개설. 제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허승필(許承弼, 3회) : 제주시 오라동 출신으로 제주대 법학과 졸업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장, 호적과장, 민형과장 등 역임. 녹조근조훈장 수상 퇴임 후 제주시내에 법무사 허승필사무소 개설.
- 고흥중(高亨鍾, 3회) : 제주시 오라동 출신으로 제주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공안사무과를 끝으로 명예퇴임하고 현재 제주시내에 법무사 고흥중사무소 개설.
- 이순홍(李順弘, 4회) : 제주시 일도동 출신으로 제주지방검찰청 서무과장, 수사과장. 대전지검 강경지청 사무과장, 광주고검 서무과장, 부산지검 기록관리과장, 광주지검 사건과장, 검찰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하고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표창, 근정포장, 녹조근정훈장 수상. 현재 제주시내에 법무사 이순홍사무소 개설.
- 고대두(高大斗, 4회) : 남제주군 위미리 출신으로 제주지방검찰청 봉직 퇴임 후 서귀포 시내에서 서부법무사 합동사무소 개설.
- 부장호(夫章豪, 4회) : 북제주군 선흘리 출생, 1992년부터 제주시에서 제일법무사합동사무소를 운영. 1965년 법원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청주지방법원 호적과장에 보임되어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등지에서 등기소장, 민형과장 등을 역임. 법원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등에서 법원행정의 요직(要職)을 맡았다. 법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에 임명.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법원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명예퇴임. 근정포장 수상. 현재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조정위원. 동제주로터리클럽 회원.
- 양철호(梁哲豪, 4회) : 북제주군 한경면 출생으로 제주지방 검찰청에서 퇴직하고 남광 합동법무사 사무소 대표를 역임하였다.
- 김승훈(金承勳, 5회) : 제주시 영평동 출신으로 제주지방법원 민형과에서 퇴직, 법무부장관 표창,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 현재 제주시내에 서부법무사 합동사무소장으로 있다.
- 양경욱(梁慶旭, 5회) : 제주시 삼도동 출신으로 제주대 법학과 졸업.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자료과, 88~91년 일본대사관 근무, 서울 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을 역임했다. 대법원 표창. 현재 서울에서 법무사 양경욱사무소 개설.

- 임영기(任永祺, 5회) :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출신으로 제주대 법학과 졸업. 제주지법, 부산지법에서 봉직, 제주도 정구연맹회장, 제주라이온즈클럽 회장. 반공연맹 운영위원, 제주시 행정자문위원, 제주시의회 부의장 등 역임. 풍천임씨 제주도종친회장, 제주지방법무사회장, 제주지법 조정위원회 등 기여한 공으로 대법원장 표창, 국민훈장동백장 수상. 현재 제주시내에서 제일법무사 합동사무소 개설.

- 조석구(趙石球, 5회) : 북제주군 한경면 조수리 출신으로 제주대 법학과 졸업. 제주지방법검찰청 수사계장으로 퇴임, 검찰총장 표창, 법무장관 표창. 제주지방법무사회 이사 현재 제주시내에서 법무사 조석구사무소 개설.

- 김의종(金義宗, 7회) : 북제주군 한경면 출신으로 제주대 법학과 졸업.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으로 퇴임. 광주고등법원 표창, 제주지방법원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현재 제주시내에 법무사 김의종사무소 개설. 제주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 김승정(金勝正, 7회) : 북제주군 한림읍 출신으로 제주대 법학과 졸업. 제주지방법검찰청 집행관을 퇴임 후 현재 제주시내에 법무사 김승정사무소 개설.

- 정창휴(鄭昌休, 9회) : 남제주군 남원읍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성동·잠실·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 및 법인세 과장, 동두천세무지서장을 지냈다. 2000년 세무사 자격과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서울지방법무사회 발전기획단, 의정부세무서 고문법무사. 현재 서울에서 법무사 겸 세무사사무소 개설.

- 송중보(宋重寶, 14회) : 북제주군 애월읍 출신으로 제주지방법원 봉직 퇴임 후 현재 제주시내에 법무사 사무소 개설.

- 고진권(高鎭權, 18회) : 남제주군 성산읍 출신으로 경희대 법학과 졸업. 제4회 법원사무관 공채로 법원공무원 교수, 서울법원 장서등기 소장, 사법연수원 총무과장, 서울지방법원 집달관실 부장. 대법원장 표창. 현재 서울시내에서 법무사 고진권사무소 개설.

- 김용하(金龍河, 22회) : 제주시 외도동 출신으로 서울 남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근무.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서 법무사 김용하사무소 개설.

- 김영탁(金映卓, 28회) : 복제주군 애월읍 출신으로 경희대 법학과 졸업. 법무부 검찰 사무직 7급 공채에 합격하여 울산 및 부산지방 검찰청 근무. 현재 울산시내에 삼강법무사 사무소 개설.

3. 특허법원

- 김학균(金學均, 19회) : 1975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1977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각 졸업. 1978. 10. 제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 같은 해 12. 부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시보(試補)로 법원 근무를 시작함. 1979년 11월 부산지방법원 산청등기소장으로 정식 발령. 1989. 3. 법원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장 등으로 근무.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서울가정법원 수석조사관, 제주지방법원 호적과장, 민사 및 형사과장, 등기과장, 총무과장 등을 역임. 화려한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1997년 1월 법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대법원 형사과정,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등을 역임. 선배인 부장호 법원이사관의 뒤를 이어 2000. 7. 법원 이사관으로 승진하여 대전시 소재 특허법원 사무국장으로서 취임.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제주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을 맡을 정도로 불심이 깊다. 그래서인지 법원 부하직원들 사이에서 ‘돌부처’라는 별명을 얻음.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83년 재무부장관 표창을, 1986년 12월 국무총리 표창 수상.

4. 법원 재직 동문

현병운(玄柄崙, 14회) 민사신청과 과장, 진영철(秦榮喆, 17회) 총무과 과장, 김종언(金宗彦, 17회) 성남지원 사무국장, 고태현(高台炫, 23회) 광주고법제주부 사무관, 박성호(朴星昊, 27회) 총무과 주사, 강명진(姜明珍, 29회) 민사신청과 주사보, 김형집(金炯集, 29회) 종합민원실 주사보, 강용전(姜龍典, 31회) 총무과 비상계획담당주사, 현영진(玄永珍, 32회) 민사과 주사보, 정두진(丁斗振, 33회) 민사신청과 서기, 고택영(高宅永, 33회) 민사신청과 서기, 홍성보(洪成輔, 33회) 광주고법제주부 서기, 강동원(姜東源, 33회) 등기과 서기, 고경수(高京秀, 35회) 민사과 서기, 양두혁(梁斗赫, 36회) 종합민원실 서기, 김상민(金相珉, 36회) 민사과 서기보, 이승륜(李承倫, 36회) 민사과 서기보, 오승철(吳承哲, 36회) 민사과 서기, 홍승표(洪承杓, 38회) 민사과 사무관, 김봉옥(金奉玉, 39회) 총무과 운전원, 박금산(朴金山, 39회) 등기과 서기, 정문석(鄭文碩, 43회) 민사신청과 서기보

5. 검찰청 재직 동문

김상식(金祥植, 14회) 사건계장, 박대훈(朴大勳, 25회) 형사 제2부장실 참여계장, 현의종(玄義宗, 27회) 경리계장, 이경태(李京泰, 27회) 춘천지검 영월지청, 정남수(鄭南秀, 28회) 414호 참여계장, 김희봉(金熙奉, 29회) 인천지검 특수부, 고명완(高銘完, 30회) 411호 참여계장, 고학범(高學範, 32회) 부산지방검찰청, 강동철(姜東徹, 35회) 총무과 총무계, 고관형(高管亨, 36회) 총무과 경리계, 김충범(金忠範, 39회) 서울지방검찰청, 고동철(高東哲, 41회) 총무과 경리계

제5절 치안·국방

1. 치안 분야

1951년 9월 25일 개교이후 치안행정분야로 진출하여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문으로 파악된 인원은 40회까지 155명(총 동창회 자료)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활동 상황을 개인별로 기술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과 여러 제약 때문에 수상(훈·포장) 내용과 함께 퇴직인 경우에만 퇴직 당시의 소속과 계급을 밝혔으며, 현직인 경우에는 소속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편의상 제주도 치안행정의 역사 및 치안업무에 대한 간단한 기술과 함께 10년 단위의 회기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총동창회 학력 및 경력자료와 직장구분별 회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미비한 점은 현직에 있는 동창의 자문을 얻어 기재하였으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 인명이 누락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1) 제주 치안행정의 역사

우리나라의 치안제도는 고대사회에는 정경일치(政經一致)의 모습을 보였으며, 삼국시대에는 율령(律令)을 중심으로 모든 형벌제도가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는 군경일체(軍警一體)의 양상을 보였다. 조선왕조의 경찰제도 또한 경찰기관이 일원화되지 못한 채 행정경찰은 군사행정에, 사법경찰은 형사행정에 분장(分掌)되어 있는 다원적 형태였다.

우리나라의 단일 경찰기관의 시작은 조선 중기 문종(文宗) 때 실시된 포도청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중종(中宗) 말년에 이르러 직제가 정립되고 명종(明宗) 때 상설화되었다.

포도청의 직능은 도적을 포함한 범법자의 체포 및 야순(夜巡)에 국한되고 그 외 경찰위반사항은 분야별로 관계 관청에서 관할하였다. 지방의 포도청 직능 역시 중앙의 그것과 같이 국한되었다.

제주의 경우 고종(高宗) 32년(1895)에 제주목(濟州牧)을 부(府)로 개편하면서 목사(牧使)를 고쳐 관찰사(觀察使) 및 주사(主事) 13인을 두었으며, 판관(判官)을 고쳐 참사관(參事官)을 두어 군수(郡守)를 겸하게 하였다. 경찰청을 설치하여 경무관과 순검(巡檢) 50명을 두었다가 1896년 가을에 관찰사를 고쳐 다시 목사를 두면서 재판소 판사를 겸하게 하고 참사관과 경무청을 폐지하였다. 광무(光武) 10년(1906) 광주경찰서 소속으로 제주분파소(濟州分派所)가 설치되었고 그 이듬해인 광무 11년에는 목포경찰서 제주분서(濟州分署)로 변경되었다. 그 후 융희(隆熙) 2년(1908)에 제주경찰서로 승격되었는데 이때 서장은 일본인이었다.

1915년 5월 제주의 군제(郡制)가 폐지되고 도사제(島司制)가 실시됨에 따라 도사(島司)가 경찰서장을 겸직하였다. 1945년 일제말기에 서장을 도사겸직(島司兼職)에서 독립하여 경찰서장을 다시 배치하여 경찰서에 경부(警部) 이하 33명이 경찰관이 있었고 외도, 애월, 한림, 고산, 모슬포, 감산, 중문, 서귀, 의귀, 성읍, 성산포, 김녕, 조천, 삼양(처음에는 봉개에 두었다가 1926년에 삼양에 설치), 추자 등 15개소에 경찰관 주재소를 두고 순사부장(巡査部長) 이하 순사 3~4명을 두어 전염병 예방주사로부터 청결법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9월 8일 미군이 진주함과 동시에 군정(軍政)을 실시하였다. 이 때는 일시적으로 기존기구를 활용하여 전후치안(戰後治安)을 확보하였다. 10월 21일에 미군정청(美軍政廳)에 경찰국을 설치하였는데, 이 날을 국립경찰 출범의 날로 정하고 오늘날까지 기념하고 있다.

1946년 4월 1일 행정기구의 개혁으로 각도(各道)의 경찰부를 관구(管區) 경찰청(전국 9개 管區)으로 개칭하고 각도의 경찰서는 관구(管區) 번호제(番號制)로 하였으며 관구 경찰청과 경찰서간에 지구감찰서(地區監察署)를 설치하여 관하 경찰서를 감독하게 하였다.

제주경찰은 이때 제8관구(전라남도)경찰청 제22구경찰서로 발족하였고,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濟州島)가 도(道)로 승격되면서 제8관구경찰청에서 분리되어 제주감찰서가 되었다. 1946년 9월 11일에는 제주감찰서가 제주감찰청으로 승격되었다. 같은 해 12월 14일에는 제주경찰서는 제1구경찰서가 되고 서귀포지서는 제2구경찰서로 승격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동시에 같은 해 11월 19일에 제주감찰청을 제주도경찰국으로 개칭하였는데, 정부수립 이전까지는 미군경찰 고문관으로 바드릿치 대위가 있었다.

194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50호에 의거 모슬포지서가 제3구경찰서로, 성산지서가 제4구경찰서로 각각 승격되고 같은 해 2월 13일 제1구경찰서는 제주경찰서로, 제2구경찰서는 서귀포경찰서로, 제3구경찰서는 모슬포경찰서로, 제4구경찰서는 성산포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57년 4월 2일 제주 4·3이 평정되면서 같은 해 7월 26일 모슬포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는 폐쇄되었다. 경찰력은 광복 당시는 200여 명이었으나 4·3이 한창이던 1953년에는 1,600여명에 이르렀다.

이후 1985년 4월 26일 제901전경대대가 창설되고, 1986년 9월 23일에는 제주국제공항경찰대가 창설되었으며,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내무부장관 소속에 경찰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1991년 제주도경찰국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승격되었으며, 경찰서 2개소, 해안경비단 1개소, 항공 경찰대 1개소, 지파출소 40개소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의 기구는 2담당관(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6과(경무, 방법, 수사, 경비, 정보, 보안)가 있다.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대민업무는 크게 방법업무, 수사업무, 정보업무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법업무로는 방법 및 풍속사범단속,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도로교통안전과 교통사범단속, 운전면허관리, 청소년 선도, 사행행위의 허가 및 단속, 유실물과 습득물의 처리 등을 들 수 있다.

수사업무는 범죄정보의 수집과 수사, 범죄감식, 유치장관리,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원처리, 시위관련사범에 대한 기초조사와 신병처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업무는 대공 및 치안과 관련된 첩보의 수집 및 신원조사 처리 등이다.

2) 회기별 치안행정 재직동문

가. 1- 10회기 동문

초창기 제주경찰에 투신하여 활동하였던 동문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바 직분을 다하여 제주경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특이한 것은 1-10회기 동문 중 1회와 10회 동문은 없고 2회부터 9회까지 30여 동문이 활동하였는데, 이들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2회 동문 : 김국형(총경, 전 제주경찰서장, 홍조근정훈장), 정창인(경감, 전 제주지방경찰청, 근정포장)
- △ 3회 동문 : 강상용(경정, 전 제주지방경찰청, 녹조근정훈장), 김공빈(총경, 전 제주경찰서장, 녹조근정훈장), 문룡기(총경, 전 화성경찰서장, 녹조근정훈장), 이종석(총경, 제주 및 종로 경찰서장, 녹조근정훈장)
- △ 4회 동문 : 문두민(경정, 전 제주지방경찰청, 녹조근정훈장), 김명임(경감, 전 제주지방경찰청, 옥조근정훈장), 정영호(경감, 전 서귀포경찰서, 근정포장)
- △ 5회 동문 : 강휘남(경위, 전 서귀포경찰서), 고동환(경위, 전 제주경찰서), 김광수(총경, 전 제주경찰서장, 녹조근정훈장), 김상원(전 서귀포경찰서), 김세봉(경위, 전 제주지방경찰청), 김길정(전 서귀포경찰서), 박한철(경위, 전 제주경찰서), 송용태(전 공항경찰대, 옥조근정훈장), 오원휴(경위, 전 제주경찰서), 오혁중(경위, 전 제주도지방경찰청), 이차석(경위, 전 서울시경 경찰악대 악장)
- △ 6회 동문 : 강관용(경위, 서귀포경찰서), 김길정(전 제주경찰서), 김양수(경정, 전 제주공항경찰대장), 김영훈(경위, 전 제주경찰서, 근정포장), 문두영(경위, 제주경찰서), 이광일(전 제주경찰서), 장용선(전 제주경찰서), 좌창택(전 제주경찰서), 현상훈(경감, 전 제주지방경찰청)

- △ 7회 동문 : 김윤관(전 제주경찰서) 김홍지(전 노량진경찰서)
- △ 8회 동문 : 고창식(전 경남지방경찰청), 김재찬(전 제주경찰서), 윤창화(전 제주경찰서), 양석문(전 제주경찰서)
- △ 9회 동문 : 김원보 (전 제주경찰서), 박문하(전 제주경찰서), 오정웅(전 제주지방경찰청) 동문 등이 퇴임하였고, 이병순(제주경찰서)동문 등은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 △ 10회 동문 : 문석진(제주경찰서)

나. 11- 20회기 동문

- △ 11회 동문 : 나용우(전 서귀포경찰서), 임원식(전 제주경찰서), 오길웅(전 제주경찰서), 허세보(전 서귀포경찰서) 동문 등이 퇴임하였고, 강문호(총경, 현 제주경찰서장)동문 등은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 △ 12회 동문 : 양정부 (총경, 현 서귀포경찰서장), 송성돈(제주경찰서), 김인근(부산지방경찰청), 양철용(제주경찰서), 조태홍(부산 동부경찰서), 강창선(제주경찰서), 김세웅(제주경찰서)동문 등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 △ 14회 동문 : 고창만(전 제주경찰서) 동문이 퇴임하였고, 고순홍(제주경찰서), 김영대(제주지방경찰청), 김영록(제주경찰서) 동문 등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 △ 15회 동문 : 강이웅(전 제주지방경찰청), 진수만(전 제주경찰서) 임행균(제주경찰서) 동문 등이 퇴임하였고, 김형운(제주경찰서), 이광석(제주경찰서), 임원창(경위, 제주경찰서), 정만영(장승포경찰서) 동문 등은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 △ 16회 동문 : 김대홍(총경, 현 여수해양경찰서장, 녹조근정훈장), 현명철(제주지방경찰청)
- △ 17회 동문 : 고종철(제주경찰서 보안계장), 박태인(제주경찰서 강력계반장), 박진호(제주지방경찰청), 오공인(제주경찰서 공항실장), 허장용(용산경찰서 경감), 정시택(부산 연산경찰서 보안계장), 허영철(제주경찰서 아라파출소장)
- △ 18회 동문 : 강봉주(제주지방경찰청), 강순영(서귀포경찰서), 송창현(제주경찰서), 이석하(서귀포경찰서), 한영수(서울 동부경찰서)
- △ 19회 동문 : 강공택(서귀포경찰서 대정파출소장), 김길삼(서귀포경찰서), 김병철(제주경찰서), 문병식(제주지방경찰청 경찰악대장), 최수중(부산 연산경찰서), 현승철(제주경찰서)
- △ 20회 동문 : 김경택(제주경찰서), 오태흠(제주경찰서), 이대준(서귀포경찰서) 동문 등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 21- 30회기 동문

- △ 21회 동문 : 고경옥(서귀포경찰서), 박영국(제주경찰서), 오문석(제주지방경찰청), 이홍석(제주경찰청)
- △ 22회 동문 : 강석중(제주지방경찰청), 강월진(제주지방경찰청), 양두환(부산지방경찰청), 양계담(제주해양경찰서), 양순주(서귀포경찰서), 정재은(부산 남부경찰서)
- △ 23회 동문 : 김원석(전 제주지방경찰청) 동문이 퇴직하였고, 송용석(제주지방경찰청), 정경택(서울 성수경찰서) 동문 등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 △ 24회 동문 : 고석홍(서귀포경찰서), 김수열(제주경찰서), 임시섭(경기 가평경찰서)
- △ 25회 동문 : 고임성(제주해양경찰서), 고재환(제주지방경찰청), 손덕계(공항경찰대), 오창훈(제주경찰서), 이상용(서귀포경찰서), 이 철(공항경찰대)
- △ 26회 동문 : 김명중(제주경찰서), 김재환(공항경찰대), 부춘택(인천 남부경찰서)
- △ 27회 동문 : 고원홍(제주지방경찰청), 김창운(제주해양경찰서 해상공해과), 김학철(서귀포경찰서), 이신송(서귀포경찰서), 임신익(제주지방경찰청), 임우덕(제주해양경찰서 256함)
- △ 28회 동문 : 고창경(경기 화성경찰서), 이운성(경찰종합학교 교관), 안기범(제주해양경찰서 276함), 이승계(제주경찰서)
- △ 29회 동문 : 김도준(제주해양경찰서 정보과장), 양영식(서귀포경찰서), 정경남(제주경찰서), 최호성(제주경찰서)
- △ 30회 동문 : 고광식(통영해양경찰서), 김명환(제주경찰서), 윤희수(제주해양경찰서)

라. 31- 40회기 동문

- △ 31회 동문 : 고한봉(제주경찰서), 김덕훈(제주경찰서)
- △ 32회 동문 : 고혁주(제주경찰서), 김우현(서귀포경찰서), 김형욱(서울 성북경찰서), 양기영(제주경찰서)
- △ 33회 동문 : 고도철(서울양천경찰서), 김도열(양천경찰서), 부성철(제주지방경찰청), 양원보(제주경찰서), 변응철(제주지방경찰청), 박기남(제주지방경찰청), 이경석(제주해양경찰서), 박맹준(공항경찰대), 전상호(제주해양경찰서), 조현(제주경찰서)
- △ 34회 동문 : 강창수(제주경찰서), 강희용(제주경찰서), 장원석(서울 서대문경찰서), 한호길(제주경찰서)
- △ 35회 동문 : 강동철(제주지방경찰청), 김완선(제주경찰서), 김형수(서귀포경찰서), 조성남(경남 양천경찰서), 문치호(제주경찰서), 진성철(제주경찰서)
- △ 36회 동문 : 김남철(서귀포경찰서), 김준채(서귀포경찰서), 이경호(제주경찰서), 조정현(제주경찰서)

- △ 37회 동문 : 김홍철(서귀포경찰서), 문성희(제주지방경찰청)
- △ 38회 동문 : 김대훈(제주경찰서), 김준행(제주경찰서), 박도준(서귀포경찰서)
- △ 39회 동문 : 한광희(제주경찰서)
- △ 40회 동문 : 김성환(제주경찰서), 송영방(서귀포경찰서) 동문 등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2. 국방 분야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1일에 종래의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해안경비대가 해군으로 정식 편입되어 국군으로 발족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군조직법’이 기초한 의안이 되어 제헌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문 23개 조항으로 된 법안이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되었다. 동법 제2장 7조에 의거하여 국방부에 참모총장 및 참모차장을 두고 그 밑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두어 각각 참모총장을 임명한 다음, 예하 각 부대와 학교 및 함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군에는 간부 양성을 위하여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와 그후 육군 제3사관학교 등이 개교하였다.

먼저, 육군사관학교는 1948년 9월 5일에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이름을 고쳐 계승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국군의 증강 단계에서 부족한 군의 간부 양성을 위하여 군사경력자의 포섭과 유능한 젊은이들을 간부로 양성해야 하는 시기였다. 육군사관학교가 정식 4년제 사관생도를 모집한 것은 생도 제2기생부터였다. 1950년 6월 1일에 3백 34명의 합격자가 입교하였다. 그러나 1개월도 못되는 사관학교 생활을 끝내고 생도 제1기와 함께 6·25전쟁의 참전으로 85명의 사관생도가 전사하였다.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전쟁 발발 3일 후인 1950년 6월 28일에 임시 휴교 조치되었다. 육군사관학교는 1951년 10월 31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4년제 대학과정으로 다시 개교함에 따라 제11기 생도가 입교하여 육사의 전통을 다시금 계승하게 되었다. 특히 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인 ‘사관학교 설치법’이 1955년 10월 1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374호’로 공포되면서 육군사관학교는 수업 연한이 4년인 대학교육 과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생도는 육군 소위로 임관할 뿐만 아니라 이학사(理學士)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다. 1974년에는 인문사회 계열과목을 보완하여 문학사(文學士)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수정하였다.

다음에, 해군사관학교는 해군병학교로 창설되어 해안경비사관학교, 해군경비대학, 해사대학 등으로 발전하며 1949년 1월 15일에 해군사관학교로 이름을 고쳤다. 해군사관학교로 개칭된 후, 1950년 2월 25일에 제3기생 54명이 2년 6개월만에 첫 졸업생으로 임관하였다. 특히 1950년 6월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 같으니 교육이 일시 중단되었다. 1955

년 10월 1일을 기하여 ‘사관학교 설치법’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374호’로 공포됨으로써 해군사관학교는 그 자격에 있어 수업연한이 4년제인 일반대학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이로써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생도는 해군 소위로 임관됨과 동시에 이학사 학위를 수여 받고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1972년 대통령의 군 과학화 지시에 따라 해군사관학교는 과학화 교육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학사, 공학사(工學士)의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다. 이로써 해군사관학교도 일반대학과 같은 수준의 전공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는 육군항공사관학교의 후신으로, 육군항공사령부가 1949년 10월 1일에 공군으로 독립됨에 따라 공군사관학교로 정식 발족하였다. 정규사관후보생인 제1기생은 4월 15일에 마감된 1천 4백 명의 지원자 중 제1, 제2차로 97명을 선발하여 6월 10일에 입교시켰다. 공군사관학교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학교를 김포에서 대구, 진해, 서울, 제주도 모슬포, 그리고 다시 진해로 이동하면서 사관생도의 교육과 훈련에 전력하였다. 공군사관학교 초창기의 교육과정은 2년제로 운영되었으나, 그나마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특히 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인 ‘사관학교 설치법’이 1955년 10월 1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374호’로 공포되면서 공군사관학교는 수업 연한이 4년인 대학교육 과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생도는 공군 소위로 임관할 뿐만 아니라 이학사와 공학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다. 1983년에는 인문사회 계열과목을 보완하여 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968년 1월 21일에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장교의 육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육군의 중견(中堅) 간부양성을 목적으로 한 단기사관학교가 1968년 10월 15일에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3월 18일에 제1기 사관생도 925명을 시작으로 성장 및 발전, 도약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육군 3사관학교이다. 특히 1968년 10월 15일에 육군 제3사관학교는 부관, 헌병, 경리, 정보학교가 있던 영천지역에, 육군 제2사관학교는 광주의 보병학교 지역에서 개교했다. 1972년 4월 26일부로 제2사관학교는 제3사관학교에 통합되었다.

한편, 미군정은 1946년 5월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공위(共委)에 참가할 한국내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자격 시비 등으로 결렬된 직후부터 좌익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정당의 비밀활동을 규제하는 ‘정당등록법’을 발표하여 좌익계 정당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한편 경찰력과 경비대 조직 등 이른바 ‘군사력’을 크게 키워 나갔다. 이와 같은 와중에 1946년 7월 2일에 러치 군정장관의 명의로 공포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령 법령 제94호’에 의하여 제주도가 설치 되었다. 1946년 8월 1일부로 남한에서 아홉 번째의 도(道)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에 분리, 도제(道制)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도 도제 실시로 말미

암아 1946년 11월 16일 모슬포에 조선 경비대 제9연대(연대장 장창국 부위)가 창설되어 발족되었다. 1946년 1월 조선경비대를 발족시킨 미군정은 각 도별로 1개 연대씩을 창설한다는 ‘뱀부 계획(Bamboo plan)’에 의거 지역별로 향토연대를 만들어 갔다. 뱀부 계획이란 ‘지역별로 조직될 연대의 대원을 현지의 지원자로 충원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계획에 따라 194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당초 경찰 지원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경비대가 8개 도에 각각 1개 연대씩 창설되었다. 제주도에는 도 승격 이후 전국에서 가장 늦게 향토 연대인 9연대가 생기게 되었다. 제주도의 9연대의 병정을 모집한 시기는 1947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3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요컨대 제주도의 승격은 지방 행정의 독립뿐만 아니라 경찰, 경비대 등 치안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7년 6월 21일에는 해병(海兵) 제주 수영(水營)이 신설되었다. 1948년 4·3으로 말미암아 1948년 10월 11일에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제주도경비사령부는 9연대 1개 대대, 5연대 1개 대대, 11연대 1개 대대, 해안경비대, 경찰대를 총괄하는 체제로 편성시켰다. 또한 토벌 병력 충원을 위하여 여수 주둔 14연대의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추가 파병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제주도에 파병하려던 대대가 여수 반란을 일으켰다. 1949년 3월 2일에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 병력은 1949년 3월 현재 한국군 2천 6백 22명, 경찰대 1천 7백 명, 민보단 및 우익 단체 약 5만 명이였다. 지금까지 해안지대에 주둔하고 있던 토벌대를 한라산 무장대 소탕작전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제1대대는 수악교(水岳橋) 부근, 제2대대는 관음사(觀音寺), 제3대대는 교래리 지경, 특수부대는 제2횡단도로 1,100고지 서쪽지대에 주둔시켰다. 1949년 11월 28일에는 해병대(海兵隊)가 제주도에 주둔하였다. 1950년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1951년 3월 21일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설치되었다. 1956년 1월 1일에는 육군제주경비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사령관은 제주도우수사령관을 겸직하였다. 1966년 2월 11일에 제주대학에는 육군 ROTC(예비 장교 훈련단)가 창단 되었다. 제주대학 ROTC[제128학도 군사훈련단] 창단은 국군장교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제주대학의 육군 ROTC는 1974년 8월 1일에 해체되었다. 육군 ROTC에 입학한 사람은 2년의 재학기간 동안 소정의 교과과정과 훈련을 통한 장교로서 소양을 갖춘 후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할 수 있었다. 1968년 4월 1일, 국본 일반명령(해) 제4호에 의해 제주대학 어로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군 ROTC가 설치되었다. 해군 ROTC는 당초 해군병과 상륙병과로 나누었으나 해군병과의 해당학과는 어로학과 뿐이었다. 하지만 해군병과에는 1979년 기관공학과가 편입되었다. 여타 학과의 학생들은 모두 상륙병과로 편제되었다.

한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별로 각 회기의 동문 명단은 <별표 1>·<별표 2>·<별표 3>·<별표 4>와 같다.

※ 안보현장의 주역들

- 대상범위(2002. 9. 30 현재)
- 예비역 : 소령 ~ 장군 · 현역 : 소령 ~ 장군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계		154	88	32	19	15
예비역	소계	84	45	16	7	11
	장군	9	6	1	2	
	대령	20	13	4	1	
	중령	26	12	3	3	5
	소령	29	14	8	1	6
현역	소계	70	38	16	12	4
	장군	2	2			
	대령	12	9		3	
	중령	29	20	4	4	1
	소령	27	7	12	5	3

〈별표1〉 육군

회기	성명	본적	계급	회기	성명	본적	계급
1	김찬중	한경판포	예)대령	4	고한중	성산온평	예)대령
1	최석산		예)소장	4	곽찬호	구좌월정	예)중령
1	하태준	전남진도	예)대령	4	정봉을	성산고성	예)소장
2	강태준	서귀서귀	예)대령	5	고문담	한경두모	예)중령
2	김덕중	한경판포	예)준장	5	강덕황	애월봉성	예)중령
2	오기준	성산성산	예)대령	5	김두봉	한경낙천	예)대령
2	조태송	한경귀덕	예)대령	5	문병훈	제주외도	예)중령
4	고일준	제주	예)중령	5	변해공	한림동명	예)소장

회기	성명	본적	계급	회기	성명	본적	계급
5	송근원	조천조천	예)대령	17	현진수	남원남원	예)소령
5	안준부	애월고내	예)소장	17	황성팔	대정무릉	예)소령
5	오명호	성산난산	예)대령	17	홍기표	구좌상도	예)대령
5	홍성제	애월어도	예)준장	18	김동훈	애월어음	예)중령
6	김광홍	한경낙천	예)중령	18	양택남	한림수원	대령
6	김달영	제주화북	예)중령	18	이태현	애월하귀	대령
6	장행립	남원남원	예)중령	19	양행규	제주도련	예)대령
6	현광호	성산성산	예)소령	19	오병길	남원위미	예)소령
6	현민웅	제주노형	예)대령	20	양봉희	애월광령	대령
8	유정건	평남안주	예)중령	20	오성민	남원태흥	대령
9	장홍익	남원남원	예)중령	21	강상수	제주봉개	예)소령
10	좌영남	애월금성	예)중령	21	박제수	전남진도	대령
11	윤좌영	구좌김녕	예)소령	22	김상훈	표선토산	대령
12	신상현	애월광령	예)대령	22	양계담	제주봉개	예)소령
13	강재일	한경고산	예)소령	22	홍승락	제주용담	중령
13	양인규	성산시흥	예)중령	23	강문용	제주삼도	예)소령
13	임석종	제주봉개	예)소령	23	문대룡	대정일과	대령
13	한철용	구좌김녕	소장	24	박만수	제주건입	중령
14	김동익	제주삼도	예)대령	24	부준효	조천북촌	중령
14	양일우	남원의귀	대령	24	양영신	남원신례	중령
15	김국남	서귀서호	예)대령	24	이한명	제주화북	예)소령
16	강창진	애월납읍	예)대령	24	한창훈	구좌김녕	중령
16	김동훈	제주삼도	예)소령	25	김용중	남원태흥	중령
16	박성수	애월하귀	예)소령	25	나봉길	제주건입	중령
17	강길수	성산삼달	예)중령	25	류종열	경남양산	중령
17	고창부	제주오라	준장	26	강범식	애월상가	중령
17	김영진	제주회천	예)소령	26	오상봉	구좌세화	중령
17	김철희	애월구엄	예)소령	27	강영근	제주일도	중령
17	이용민	애월광령	대령	27	강영일	서귀법환	중령
17	유승호	안덕사계	예)중령	27	오영철	제주아라	중령

회기	성명	본적	계급
27	육근석	경남밀양	중령
28	강덕찬	성산수산	중령
28	문병옥	제주일도	중령
28	신영근	조천신촌	중령
28	양성인	제주용담	중령
28	한경용	조천함덕	중령
29	고희준	제주일도	중령

회기	성명	본적	계급
30	문만재	대정일과	소령
31	김철희	한경저지	소령
32	시성지	제주건입	소령
32	정효종	제주이도	소령
32	현동일	서귀중문	소령
32	홍기호	서귀강정	소령
35	이상철	제주삼도	소령

〈별표2〉 해군

회기	성명	본적	계급
1	이겸우	한림귀덕	예)대령
1	장봉진	평남	예)대령
2	박동규	추자영흥	예)대령
2	안택준	제주이도	예)소령
3	안창호	제주삼도	예)중령
5	강택삼	서귀서귀	예)준장
12	한재돈	조천함덕	예)중령
14	강익중	제주용담	예)대령
16	김대홍	제주이호	예)소령
16	현계선	한경고산	예)소령
17	김종욱	한림귀덕	예)소령
18	강관성	성산신산	예)중령
18	송성일	표선표선	예)소령
21	김창모	제주해안	예)소령
21	김통천	중문중문	예)소령
23	이도현	애월하귀	중령

회기	성명	본적	계급
23	이진형	조천신촌	예)소령
24	김원주	제주건입	중령
25	오봉필	구좌한동	중령
28	강석추	제주일도	소령
28	고창민	제주이도	소령
30	고태욱	서울성북	소령
30	양한진	애월어음	소령
30	오경주	애월상가	소령
30	현창화	제주영평	소령
31	김창훈	제주화북	소령
31	박상언	제주연동	소령
31	정동훈	표선표선	소령
35	강정우	서울종로	중령
35	김석진	한경저지	소령
36	고봉준	제주도련	소령
36	부상철	구좌평대	소령

〈별표3〉 공군

회기	성명	본적	계급	회기	성명	본적	계급
2	이방택	제주삼도	예)준장	21	현문준	서귀법환	대령
5	임옥훈	애월하가	예)중령	23	김만호	전남해안	중령
6	신종대	부산청학	예)중령	26	김인택	안덕창천	중령
10	고찬구	제주도평	예)소령	26	김정근	제주용담	중령
12	김석우	제주용담	예)소장	26	송일열	서울영등	중령
14	강만수	조천조천	대령	29	고승철	제주오라	소령
14	김두행	애월신엄	예)중령	32	이경봉	제주삼양	소령
16	김오민	한림귀덕	대령	33	이국진	추자목리	소령
17	김재천	남원태흥	예)중령	35	양동헌	한림동명	소령
17	홍기표	구좌상도	예)대령	36	강정현	대정구억	소령

〈별표4〉 해병

회기	성명	본적	계급	회기	성명	본적	계급
1	신수용	제주일도	예)소령	17	김경홍	제주일도	예)소령
1	문원경	제주화북	예)소령	17	류승호	안덕사계	예)중령
3	김승욱	한림대림	예)중령	17	서경휴	제주연동	예)소령
3	김형진	애월납읍	예)중령	20	김영남	제주용담	예)소령
4	장세봉	제주삼양	예)소령	28	김성훈	제주일도	중령
5	윤관선	제주화북	예)중령	29	정홍철	표선세화	소령
15	허승진	제주오라	예)중령	32	강동흠	제주용강	소령
16	이신성	제주화북	예)소령	32	김명철	애월납읍	소령

강만순(20회, 경영학박사)